

연구보고 R444 / 2002. 12.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박 대 식 연구위원
최 경 환 연구위원

연구담당

박 대 식 연구위원 연구총괄, 제1장~제3장, 제5장~제8장 집필
최 경 환 연구위원 제4장, 제9장 집필

머 리 말

우리나라의 삶의 질 관련 지표들은 주로 도시 위주로 설정되어 왔기 때문에 농촌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 관련 자료로는 『한국의 사회지표』, 『농촌생활지표』, 『농업 총 조사』 등이 있으나 각각 ‘삶의 질’의 일부분만을 다루고 있다. 더구나 농촌주민의 삶의 질 관련 통계자료나 선행연구들은 지나치게 양적 지표 중심이었으며, 농촌주민의 입장에서 삶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크게 부족했다.

최근 농가경제의 악화,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가족의 기능 약화, 농외소득 기회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농촌주민의 생활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도·농간의 삶의 질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사회안정과 국민통합을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 실태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기초 통계자료”들이 크게 부족하여 농촌복지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 연구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를 개발하여 앞으로 농촌주민의 삶의 질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이 연구 결과가 농촌주민의 삶의 질 실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농촌주민의 복지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전문가 의견조사에 협조해 주신 관련 전문가, 현지 설문조사에 응해 주신 농촌주민 및 연구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해 주신 관계기관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2002.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요 약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 관련 자료로는 「한국의 사회지표」, 「농촌생활지표」 등이 있으나 각각 ‘삶의 질’의 일부분만을 다루고 있다. 더구나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 관련 통계자료나 선행연구들은 여전히 양적 지표 중심일 뿐만 아니라 농촌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농촌주민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 농촌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마련하고, ② 앞으로 농촌주민의 삶의 질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

이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방법은 기존자료 조사, 델파이조사 방법을 통한 전문가 의견조사,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의 문제점 파악을 위한 현지 주민조사 등이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 최종 시안은 7개 부문(경제적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편리한 삶, 쾌적한 삶, 안정된 삶, 즐기는 삶)의 총 8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지표는 총 26개인데, 경제적 삶 부문에서 4개(가구소득, 소득만족도, 직업만족도, 평균 근로시간), 건강한 삶 부문에서 4개(주관적 건강 평가, 외병일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안전한 삶 부문에서 4개(보고된 범죄 발생 총 건수, 전화폭력 경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 지역사회의 안전 수준에 대한 만족도), 편리한 삶 부문에서 3개(주택에 대한 만족도, 컴퓨터 사용시간, 자동차 소유 여부), 쾌적한 삶 부문에서 4개(상수도 보급률, 수질오염도, 하수·오수 처리 방법, 지역사회 생활의 쾌적성에 대한 만족도), 안정된 삶 부문에서 3개(노후준비 정도, 학력,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즐기는 삶 부문에서 4개(공연

장·전시장 관람, 신문구독,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사회단체 참여)의 지표가 선정되었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 관련 조차체계는 전국 단위의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방안, 농촌주민의 삶의 질 실태에 관한 간이 및 총조사 방안, 도 및 시·군 단위 통계 생산체계의 개선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국 단위의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우선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 농촌생활연구소의 『농촌생활지표』 생산 시에 기존의 모든 지표들에 대하여 가급적 동부와 읍·면부간의 비교분석을 추가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실태에 관한 간이조사 방안은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 중의 대표지표를 중심으로 매년 간이조사를 하는 방안이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실태에 관한 총 조사방안은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를 근거로 삼아 매 5년마다 삶의 질 지표 전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도 및 시·군 단위 통계 생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① 도별 사회지표의 생산을 장려하고 지표 생산 시에 도·농간 비교를 의무화하고, ② 도 및 시·군 단위 통계자료 생산 시에 중앙 단위의 ‘삶의 질’ 관련 통계자료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③ 도 및 시·군 단위 통계자료의 조사체계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최종 시안) 또는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체계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④ 도 및 시·군의 통계연보 조사항목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고 관련 통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가 구체적인 지표생산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통계청, 농림부, 농촌진흥청과 같은 정부 중앙 부처,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들간에는 기존의 조사체계, 인력, 예산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3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6

제2장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삶의 질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 10
2. 삶의 질의 측정방법 13
3. 삶의 질 지표로 이용할 수 있는 관련 지표 14
4. 삶의 질 지표의 설정방법 15

제3장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 관련 국내 통계자료의 현황과 문제점

1. 전국 단위 통계자료 17
2. 도 단위 통계자료 19
3. 시·군 단위 통계자료 21

제4장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관의 삶의 질 지표체계 검토

1. 주요 선진국의 삶의 질 지표체계 24
2. 국제기관의 삶의 질 지표체계 30
3. 시사점 33

제5장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35
2.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37
3. 전문가 의견조사의 주요 결과	38
제6장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 시안의 문제점 파악을 위한 주민조사 결과	
1. 농촌 주민조사 개요	45
2.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46
3. 농촌 주민조사에서 파악한 삶의 질 지표체계 시안의 문제점	48
4.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 조정에 있어서 현지 주민조사 결과의 활용내역	49
제7장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	
1.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의 기본방향	52
2. 농촌주민의 삶의 질의 부문 및 관심영역	53
3.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	56
4. 용어 해설 및 산식	70
제8장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 관련 조사체계의 확립	
1. 전국 단위의 기존 통계자료의 활용	85
2. 간이조사 방안	87
3. 총 조사 방안	87
4. 도 및 시·군 단위 통계 생산체계의 개선	88
제9장 요약 및 결론	89

부록

부록 1.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표	98
부록 2.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지표의 문제점 파악을 위한 현지조사표	113
부록 3. 농촌주민의 삶의 질 실태조사 결과	130
Abstract	134
참고문헌	136

표 목 차

제5장

표 5-1. 제1차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적용된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	36
표 5-2. 제2차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적용된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	36
표 5-3. 전문가 집단의 주요 인적 사항	37
표 5-4. 기존 통계자료집의 농촌주민의 삶의 질 관련 통계 제시 정도	38
표 5-5.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 개발의 기본방향	39

제6장

표 6-1. 현지 주민조사의 대상지역 및 대상자 수	46
표 6-2.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47

제7장

표 7-1.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의 부문 및 관심영역	55
표 7-2. 경제적 삶 부문 지표	57
표 7-3. 건강한 삶 부문 지표	59
표 7-4. 안전한 삶 부문 지표	61
표 7-5. 편리한 삶 부문 지표	63
표 7-6. 쾌적한 삶 부문 지표	65
표 7-7. 안정된 삶 부문 지표	67
표 7-8. 즐기는 삶 부문 지표	69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선진국에서 국민의 종합적인 삶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사회지표의 개발은 192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196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화되어 ‘사회지표운동’으로까지 발전되었다. 이것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범죄, 환경파괴 등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사라지지 않는데 대한 자각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종합적인 삶의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를 개발하여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가 발전하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1960년대 이래로 양적 경제규모의 확대에 주력하는 성장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삶의 질적 측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뒤늦고 소홀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즉, 우리나라의 삶의 질 관련 지표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 중반에 시작되어 1980년대까지 서서히 증가하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본격화 되었다. 최근 삶의 질 관

런 지표는 점차 특정영역에 대한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특수지표(예를 들면, 환경지표, 문화지표, 정보화지표, 보건복지지표)로 발전되는 추세이다.

농촌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자연환경에 접해서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농림업과 같은 기초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대다수의 도시주민들은 고층빌딩이나 지하철과 같은 인공적인 환경에 둘러싸여 있고 일상적으로 인구 과밀과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삶의 질 관련 지표들은 주로 전국 단위 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도시 위주로 설정되어 왔기 때문에 농촌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 관련 자료로는 「농가경제통계연보」, 「농업 총 조사」, 「농림업 주요통계」, 「농촌생활지표」, 「한국의 사회지표」 등이 있으나 각각 농촌주민의 '삶의 질'의 일부분만을 다루고 있다. 「농가경제통계연보」 및 「농업 총 조사」, 「농림업 주요통계」에서는 삶의 질 관련 지표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농촌생활지표」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문제를 비교적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지표 관련 최신 자료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는 최근에 다소 보완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농촌과 농촌주민에 대한 통계자료가 크게 부족하다.

더구나 농촌주민의 '삶의 질' 관련 통계자료나 선행연구들은 여전히 양적 지표 중심일 뿐만 아니라 농촌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농촌주민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수입확대 및 과잉생산 등으로 인한 농산물의 가격폭락, 가족의 기능 약화, 사회보장제도의 미흡, 농외소득 기회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농촌주민들의 생활이 크게 불안정해지고 있다. 그리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사회안정과 국민통합을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 실태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이 크게 부족하여 농촌복지정책의 추진과 예산확보 등에서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촌주민의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관련 지표들에 비해서 농촌주민들의 삶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삶의 질 지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 가구 및 개인 단위를 중심으로 농촌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마련하고, ② 앞으로 농촌주민의 삶의 질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다.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나타났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학문적 노력도 이 시기에 함께 시작되었다.

1970년대의 삶의 질 연구는 학술적 차원보다는 경제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작업의 일환이라는 성격이 강했으며, 객관적 지표의 설정과 수집에 초점을 두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발전의 문제점들이 표면화되기 시작하고 외형적인 발전과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삶의 질간에 큰 괴리가 발생함에 따라 학계를 중심으로 객관적 지표뿐만 아니라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및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민 사이에서 이제 양적 성장만이 능사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서 삶의 질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하고 연구도 활성화되었다.

삶의 질 관련 연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지만 일반적인 사회지표나 복지지표를 중심으로 일반국민 또는 도시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한국의 사회지표』는 1979년에 최초로 128개 지표를 대상으로 공표가 된 이래 매년 작성되고 있는데, 지표의 수는 매년 증가하여 1980년 151개, 1990년 262개, 2000년 531개, 2001년 537개가 되었다. 2001년의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는 13개 관심 영역(인구, 가족, 소득과 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와 교통, 정보와 통신, 환경,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사회 참여) 및 청소년 통계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지표를 작성하는데는 각급 통계기관에서 생산하는 기존 통계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재분류하여 작성하는 방법과 기존 통계에서 생산되지 않는 주관적 및 사회적 관심사 등에 대하여 직접 사회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중앙일보사(1995)는 “전국 74개 시 비교평가 자료집: 삶의 질 입체 분석”에서 전국 74개 도시의 삶의 질을 비교 평가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삶의 질의 평가항목은 6개 영역(건강한 생활, 안전한 생활, 교육복지, 경제생활, 편리한 생활, 문화생활)에서 36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도시의 서열을 보여 주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6)은 “한국인의 삶의 질: 현황과 정책과제”에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관심영역 및 관련 사회지표를 선정하고, 이에 의한 삶의 질 측정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세계 174개국의 통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부문별 및 전 부문 종합지수를 산출하였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질 현 주소를 파악하였다. 여기서 삶의 질의 개념은 “개인 및 인구집단이 향유하는 물리적, 비 물리적

가치의 총화”로 정의되었다. 그리고 삶의 질을 보건·의료 부문, 경제 부문, 교육 부문, 문화·정보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삶의 질’의 국제비교를 제시하였다.

이현송(1997)은 “한국인의 삶의 질”에서 삶의 질의 객관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서구의 과거 상황과 비교하여 현재 한국인의 삶의 질의 양상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객관적인 삶의 차원으로는 소득, 보건, 교육, 노동, 문화·정보, 형평의 6개 부문이 구분되었으며, 각각의 부문에 대한 요약 지표 치를 표준화하여 비교에 이용하였다. 그리고 1960년대 이래로 1990년대까지의 5개 시점에 대한 우리나라 및 OECD 국가들의 통계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중·하위 국가들의 1970년대 및 1980년대 초반의 수준에 대응되며, 상위국가들의 1960년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또는 농촌주민/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삶의 질’ 관련 선행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김동일 등(1982)은 “한국 농촌주민의 삶의 질: 사회지표 구성을 위한 종합적 접근”에서 연구대상을 농촌 지역 사회, 부락, 가족 및 개인으로 보고, 농촌 지역사회의 생태학적 조건, 농촌주민의 객관적인 삶의 질, 그리고 이들에 대한 농촌주민 자신들의 주관적인 평가를 조사하였다. 농촌주민의 객관적인 삶의 질은 크게 가족, 계층, 경제생활과 생활수준, 교육 및 의료의 다섯 가지 부분으로 나누었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의 주관적 만족도는 별도로 선정된 16개 지표를 요인분석을 한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으며, 아노미와 소외,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과 같은 사회심리적 지표도 함께 검토하였다.

김인숙·최은숙(1993)은 “농가의 생활수준 및 생활만족수준에 관한 연구: 생활의 질에의 접근을 위한 시도”에서 농가의 생활의 장을 가정과 지역사회로 한정하여 생활수준과 생활만족수준을 생활의 질

의 하위개념으로 설정하여 농가의 생활을 진단해 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농촌 또는 농촌주민/농업인의 삶의 질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도시(동부)와 농촌(읍·면부)간의 비교 및 격차에 주목하다 보니 평균적인 의미에서의 농촌의 삶의 질 수준밖에 파악하지 못하여 사회계층별 차별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전국 단위 통계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지방이나 지역 단위의 삶의 질 측정지표 생산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농촌에 거주하는 가구(가족) 및 개인 단위에 대한 정확한 삶의 질 지표를 생산하려는 노력이 크게 부족했다.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3.1. 연구의 범위

이 연구에 있어서 농촌은 군부(郡部) 이하의 지역(도·농 통합시의 읍·면 지역 포함)을 말한다. 삶의 질 지표 관련 실태조사를 위한 농촌주민의 범위는 조사 당시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한다. 그리고 ‘삶의 질’이란 “물리적,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평안하고 풍요로우며 건강하게 사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3.2. 연구의 주요 내용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1장(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연구의 내용과 방법을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삶의 질의 개념에 대

한 이론적 검토, 삶의 질의 측정방법, 삶의 질 지표로 이용할 수 있는 관련 지표, 삶의 질 지표의 설정방법을 다루었다. 제3장에서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 관련 국내 통계자료의 현황과 문제점을 전국, 도, 시·군 단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관의 삶의 질 지표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의 문제점 파악을 위한 주민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7장에서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의 기본방향,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의 부문 및 관심영역,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 용어 해설 및 산식을 제시하였다. 제8장에서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 관련 조사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제9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하였다.

3.3. 연구방법

3.3.1.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이 연구를 위해 기존자료 조사, 현지 예비조사, 델파이조사 방법을 통한 전문가 의견조사,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의 문제점 파악을 위한 현지 주민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이 중에서 기존자료 조사는 농림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련 기관, 기타 국내·외의 문헌 및 통계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현지 예비조사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 제1차 시안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충북 진천군 및 충남 예산군에서 10명의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례지역(양평, 광주, 진천, 예산, 정선, 보은)의 삶의 질 지표 관련 통계자료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텔레파이어조사를 위해서는 한국농촌사회학회, 한국농업경제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농업정책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농업인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공무원 등에서 조사 대상자 100명을 선정하였다. 전자우편(E-mail) 조사를 위주로 하되 일반 우편조사와 전화면접 등을 보조 조사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제1차 및 제2차 시안)에 대하여 지표개발의 기본방향, 지표 부문, 관심영역, 각 지표의 적절성, 대표지표 등에 관한 것을 주로 조사하였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현지 주민 면접 설문조사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 제2차 시안을 바탕으로 가구 및 개인 단위의 현지조사가 필요한 지표를 구분하여 조사문항을 구성하였다. 조사지역으로는 도시근교 지역은 경기도 양평군 및 광주시(도·농 통합시), 평야 지역은 진천군과 예산군, 산간 지역은 정선군과 보은군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지역(시·군)별로 10명 씩 선발하여 총 60명을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자 선정 시에는 직업, 주 작목(벼, 과수, 채소, 축산 등), 나이 등을 고려하였다.

3.3.2.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 작성 과정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 작성은 다음과 같은 3단계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첫째, 선행연구 검토, 관련 통계자료 분석, 예비조사 등을 통해서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 체계 제1차 시안(6개 부문 총 102개 지표)을 마련하였다.

둘째,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 제1차 시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제1차) 결과를 반영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 제2차

시안(6개 부문 총 105개 지표)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기존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재분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표와 현지의 지역 단위 조사가 필요한 지표를 구분하였다.

셋째, 제2차 시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제2차) 결과를 반영하고, 현지 예비조사 및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 제2차 시안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현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 최종시안(7개 부문 총 87개 지표)을 마련하였다.

제 2장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삶의 질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

1.1. 삶의 질의 개념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삶’과 ‘질’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삶’이란 개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는 일, 살아 있는 일, 날마다의 생활, 목숨 또는 생명을 의미한다. 즉, 삶이란 사람이 살아가거나 생활하는 일을 뜻한다. 그리고 ‘질(質)’이란 개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질’은 타고난 성질, 됴됨이의 바탕, 그리고 천성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둘째, ‘질’은 어떤 사물의 유용성, 내용의 좋고 나쁨, 가치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셋째, ‘질’은 어떤 사물현상의 본질적인 특성과 유기적인 통일에 기초한 그 사물 현상을 다른 대상과 구별케 하는 특색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즉, ‘질’이란 개념은 특정한 가치

판단과 결합되어 어떤 사물의 합목적성을 표현하는 규범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삶의 질’이란 ‘살아가는 일이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1.2. 삶의 질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관점들

삶의 질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관점들로는 쾌락이론, 욕구이론, 객관적 목록이론, 일차적 재화이론, 실체적 유익이론, 수용능력접근 등을 들 수 있다.

쾌락이론(hedonistic theory)은 삶을 영위해 가는 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본다. 즉, 삶의 질은 경험요건에 입각한 주관적 내지 심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욕구이론(desire theory)은 삶의 질이 개인이 지니는 욕구의 충족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개인의 삶은 그 개인의 의식상태 변화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선호를 충족시켜 주는 외부의 상황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객관적 목록이론(objective list theory)은 삶을 더 좋게 만들 것으로 보이는 통계처리 가능한 모든 대상들을 열거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무엇이 삶을 더 좋게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특정한 관점은 제시하지 않는다.

일차적 재화이론(primary goods theory)은 생활의 기초가 되는 실질적인 재화가 삶의 질을 규정한다고 본다. 여기서 재화는 합리적인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기를 원하는 사용가치를 지니는 것들로서, 경제학에서의 상품과 달리 한 사회의 통제대상이 될 수 있는 일차적 사회재화인 권리, 자유, 권력과 기회, 소득과 부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실체적 유익이론(substantive good theory)은 삶의 질을 규정하는 것

은 진정한 유익성이며, 유익성의 판단이 욕구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객체에 관한 실체적 판단을 거쳐 삶의 질을 규정하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무엇이 실체적으로 유익한 것인가에 대한 정의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수용능력접근(capability approach)은 삶의 질은 다양한 행위와 존재의 결합인 생활이라는 관점에 기초하며, 가치 있는 기능을 달성하는 역량인 수용능력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재화의 고유가치(잠재능력)와 기능은 소비자의 수용능력에 따라 그 효용 또는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상품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데서 오는 정신작용 혹은 인간 스스로가 내리는 평가가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1.3. 이 연구의 이론적 관점

수용능력접근(capability approach)에 따르면, 삶의 질은 삶의 구성요소인 다양하고도 가치 있는 기능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제도나 정책 등 사회적인 수준의 좋고 나쁨에 대한 평가도 개인적인 능력의 실현을 돕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즉, 수용능력접근은 인간의 필요욕구와 이에 대응하는 외부적 수단가치의 결합을 통하여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수용능력접근법은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포괄하고, 특히 삶의 질의 객관적 측면뿐만 아니라 주관적 측면도 잘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기본적 이론적 관점은 수용능력접근을 기본으로 한다.

2. 삶의 질의 측정방법

삶의 질의 측정방법에는 개인복지접근법(personal well-being approach), 지역추세접근법(community trend approach), 생활가능성접근법(livability comparison approach), 시장·주거접근법(market/residence approach), 주·객관 절충방식 등이 있다.

개인복지접근법은 삶의 질은 다분히 개인의 경험에 의한 주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개인복지접근법에서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만족도를 통해서 삶의 질을 측정하려고 한다. 주관적 만족도의 측정에는 대개 일정한 척도를 활용하는데 주로 리커어트(Likert) 5점(또는 7점) 척도가 주로 활용된다.

지역추세접근법은 지역사회의 삶의 질 구성요소와 추세에 초점을 두는 방식이다. 지역추세접근법은 삶의 질을 일정한 척도나 기준에 의해 총체적으로 또는 구성요소별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소나 개별지표의 변화 추이를 단순히 관찰하는 방식이다. 즉, 지역추세 접근법은 삶의 질의 총체적 지표로서보다는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삶의 질의 구성요소들의 변화를 예측하여 부문별 사회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된다.

생활가능성접근법은 삶의 질을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의 지역 간 비교에 중점을 두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는 순위평가 모형, 다차원 거리 모형 등이 있다. 순위 평가모형은 지역(도시)의 개별 삶의 질 지표 값을 표준화지수로 치환하여 지역별 삶의 순위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다차원 거리모형은 먼저 개별 지역(도시)의 삶의 질 지표들의 최적치를 취합하여 모델 지역(도시)의 삶의 질 지표 값의 체계를

구성한다. 그리고 모델지역(도시)의 삶의 질 지표들의 최적치와 개별 도시의 실제 측정치 사이의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를 측정하여 개별 도시의 삶의 질을 평가한다.

시장·주거접근법은 임금과 주거비용에 내재된 지역 간 삶의 질의 차이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시장·주거접근법은 먼저 삶의 질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을 설정하여 계량화한 다음 임금과 주거비용에 자본화되어 나타나는 삶의 질 구성요소들의 잠재가격을 구한다. 그리고 각 지역의 구성요소들의 수량과 잠재가격을 곱하고 그 값들의 합으로 각 지역의 삶의 질을 측정한다.

주·객관 절충방식은 객관적인 삶의 질 지표와 주관적 만족도를 절충하여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이 방식은 생활가능성접근법에서 강조하는 객관적 지표와 개인복지접근법에서 강조하는 주관적 만족도도 함께 고려하는 절충적 방식을 취한다. 삶의 질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는 긴밀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다. 즉,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주·객관 절충방식을 적용한다.

3. 삶의 질 지표로 이용할 수 있는 관련 지표

삶의 질 지표로 이용할 수 있는 관련 지표로는 사회지표, 생활수준지표, 기본생활수요지표, 의식조사지표를 들 수 있다.

사회지표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양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 지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사회지표의 작성 목적은 사회적 상태를 총체적이고 집약적으로 나타내는데 있다. 사회지표의 예로서는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를 들 수 있다.

생활수준지표는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에 관심을

두는 소규모의 지표체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생활수준지표는 축소된 형태의 사회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활수준지표는 객관적 지표 위주이기 때문에 국민의 정신적 행복과 만족감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기본생활수요지표는 삶의 일반적인 수요보다는 인간의 일상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기초수요에 관심을 둔다. 이 지표는 대다수의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 관련 통계생산의 기반이 대단히 열악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만든 축약된 형태의 사회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의식조사지표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의식조사지표는 지역 주민의 상이한 개인적 특성, 사회·경제적 계층, 그리고 상이한 삶의 질에 대한 욕구와 태도를 지역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4. 삶의 질 지표의 설정방법

삶의 질 지표의 설정방법으로는 연역적 방법, 귀납적 방법, 시민·참여적 방법이 있다.

연역적 방법은 먼저 전문가들의 사고에 의해 사전적으로 분류된 수요 측면에서의 삶의 관심이나 영역 혹은 목표 측면에서 추구하는 삶의 목표나 가치를 설정한다. 그 다음 이들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 부문을 구체화할 수 있는 순차적 기준을 설정하여 실측 가능한 지표를 선정한다.

귀납적 방법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지표들을 추출한 후, 통계적 기법을 활용(주로 요인분석)하여 최종지표들을 선택한다.

시민·참여적 방법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시민 개개인이 관심을 갖고 공감할 수 있는 지표설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지표는 단지 측정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되며, 발전적 변화를 불러와야 한다고 본다.

이 연구의 삶의 질 지표 설정은 연역적 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귀납적 방법과 시민·참여적 방법을 보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 제1차 시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주로 연역적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지표의 적합성 정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는 통계적 분석을 통한 귀납적 방법을 일부 적용하였으며, 지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새로운 지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는 현지 주민조사를 통한 시민·참여적 방법을 적용하였다.

제 3장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 관련 국내 통계자료의 현황과 문제점

1. 전국 단위 통계자료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 관련 대표적인 전국 단위 통계자료로는 「한국의 사회지표」, 「농업 총 조사」, 「농촌생활지표」, 농림부 및 통계청의 농업 관련 각종 통계자료 등이 있다.

통계청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지표」의 경우, 그 동안 상당히 보완되기는 했으나 도시·농촌(동부/읍·면부)간 비교가 누락된 항목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시·농촌간 비교 자료 중에는 자료가 너무 오래 되어 자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2001년 12월에 발간된 「2001 한국의 사회지표」의 도시·농촌간 비교에서 1997년도 또는 그 전의 자료를 가장 최신의 통계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월 소득 계층별 가구분포’의 경우에 가장 최신 통계로 1996년도 자료를 전국, 시부(市部), 군부(郡

部)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저축 및 부채 보유 실태’의 경우도 가장 최신 자료가 1996년도 자료이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통계조사 자료인 경우에 더욱 심하다. 예를 들면,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부분의 많은 지표들은 가장 최신 자료가 1997년도 자료이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은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가 전체 12개 부문을 매년 3개 부문으로 나누어 4년 주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통계청 사회통계국 농수산통계과에서 작성하는 『농업 총 조사』는 조사주기가 10년(서력 끝자리 ‘5’자 연도에 간이조사)이며,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행정권이 미치는 전국의 모든 농가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농업 총 조사』의 목적은 농가 수, 농가인구 등 농촌지역의 구조와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읍·면 단위까지 세분화된 지역자료를 생산함으로써 ① 농업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② 동 부문의 연구기관, 학계 등에서 연구·분석자료로 활용하며, ③ 농업 관련 통계조사를 위한 표본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조사보고서에는 조사사항으로 농가에 관한 것(전·겸업별, 영농 형태별, 행정구역별 등), 농가인구에 관한 것(가구원, 연령, 성별, 교육, 농사종사기간, 주 종사 분야 등), 농경지에 관한 것(논 면적, 밭 면적, 수확 면적, 시설 면적 등), 농축산에 관한 것(축종별 마릿 수, 농축산물 판매액, 판매 방법 등), 기타(농기계 보유대수, 논벼 영농방법, 친환경농업 실천, 정보화, 주거환경, 향후 영농계획 등) 등이 담겨 있다. 즉, 『농업 총 조사』에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관련 지표가 극히 일부만(그것도 농업인만) 다루어지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에서는 1994년도에 『농촌생활지표』를 처음 발간한 이래로 1999년, 2000년, 2001년에 세 차례 발간하였다. 1994년 및 1999년의 농촌생활지표는 기존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농촌생활과 관련된 지표들을 체계적으로 재분류하여 작성하였으나, 2000

년부터는 현지조사를 통해 직접 생산한 지표항목을 포함시켰다. 2001년도 『농촌생활지표』는 8개 부문(인구 및 사회, 식생활, 건강생활, 주거 및 환경, 가정경제, 교육 및 교양, 여가생활, 가족생활) 397개의 개별지표(통계수록 지표는 322종)로 구성되어 있다.

농촌생활연구소의 『농촌생활지표』는 사회복지, 안전과 같은 부문의 지표가 취약하고, 지표수에 있어서 부문들간에 격차가 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농촌생활지표조사도 8개 부문을 3년 주기로 매년 2~3개 분야씩 나누어서 조사함으로써 시의성이 떨어지고, 읍·면 지역 주민만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도·농간 비교가 어렵다는 단점을 지닌다.

농림부 및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농업·농촌 관련 기타 자료들로는 『농림업주요통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농업기본통계』, 『농가경제통계』 등이 있는데, 이들은 농업 및 농업인 중심이고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요컨대,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 관련 전국 단위 통계자료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대체로 양적 지표 위주이기 때문에 생활의 질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둘째, 삶의 질 관련 지표들이 각종 자료집에 분산되어 있어서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일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셋째, 삶의 주관적 측면은 주로 사회조사(주로 면접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한번에 조사하지 못하고 몇 년 동안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어서 조사내용이 시의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도 단위 통계자료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 관련 도 단위 통계로는 도별 통계연보,

도별 백서, 도별 사회지표(예를 들면, 경남의 사회지표, 경기사회지표) 등이 있다.

도별 통계연보(예를 들면, 2001경기통계연보, 충북통계연보, 경남통계연보)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연혁, 토지 및 기후, 인구, 노동, 사업체, 농림수산업, 광공업, 전기·가스·수도, 유통·금융·보험 및 기타 서비스, 주택·건설, 교통·관광 및 정보통신, 보건 및 사회보장, 환경, 교육 및 문화, 재정, 소득, 공공행정 및 사법, 전국통계, 국제통계 등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별 통계연보는 도내의 시 및 군들 간의 비교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도시/농촌(동부/읍·면부)간 비교 지표는 거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도별 백서(예를 들면, 전라남도의 2001년도 도정백서)에는 일반행정, 문화환경행정, 복지여성행정, 농림행정, 해양수산행정, 경제통상행정, 건설교통행정, 민방위·소방행정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자료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농촌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자료는 농림행정 부문의 농촌진흥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통계치(예를 들면, 전남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구축내용,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현황, 농업인 교육 추진 실적 등)를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즉, 도별 백서에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 거의 없다.

도별 사회지표에는 도·농간 비교 자료가 잘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경남의 사회지표』는 1992년에 146개의 지표를 체계화한 이래로 매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2001년에는 124개의 지표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2001년도 『경남의 사회지표』의 124개 지표를 살펴보면, 13개 항목은 통계청 등 각 기관 단체에서 생산한 기존 통계를 활용하였고, 기존 자료에서 얻을 수 없는 주관적·심리적·사회적 관심사 등 111개 항목은 도민 10,000명을 대상으로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획득하였다. 경남의 사회지표

체계는 11개 부문(인구, 소득·소비, 고용·노사, 교육, 보건·체육, 주택, 환경·교통, 사회, 정보화, 문화·여가, 안전)으로 나누어 각 부문별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도별 사회지표를 생산하지 않는 도가 상당수 있고, 도별로 다루고 있는 지표들의 범위가 다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별 사회지표들은 부문별로 지표를 균형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요한 지표들이 누락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사회조사를 대규모(1만 가구 정도)로 하여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몇 년 동안(주로 3년) 나누어서 실시하여 효율성과 통계치 생산의 시의 적절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도별 사회지표는 각 시·군에서 발행되는 각종 통계자료와의 연계가 부족하다.

3. 시·군 단위 통계자료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 관련 시·군 단위 통계로는 시·군 통계연보, 시·군지, 시·군 교육통계연보, 시·군 의회 자료 등이 있다.

시·군 통계연보에는 연혁, 토지 및 기후, 인구, 노동, 사업체 총괄, 농림수산업, 전기·가스·수도, 유통·금융·보험 및 기타 서비스, 주택·건설, 운수·관광 및 정보통신, 보건 및 사회보장, 환경, 교육 및 문화, 재정, 소득, 공공행정 및 사법 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양평, 광주, 진천, 예산, 정선, 보은, 영천, 단양, 봉화 등의 시·군 통계연보의 검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시·군 통계연보의 경우, 「통계연보 표준화 서식」에 의하여 조사항목은 상당히 통일되었으나 통계조사의 기준 단위가 다른 경우가 아직도 많다. 예를 들면, 자동차 보급률의 경우, A군(郡)은 10세대 당 몇 대로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서 B군(郡)은 군민 100인당 몇 대로 제시하고

있다. 상수도 보급과 관련해서도 B군(郡)은 보급률을 제시하는데 반해서 C군(郡)은 군민 1인당 상수도 보급량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시·군 통계연보들은 시대변화로 인해서 그 중요성이 줄어든 지표를 관행적으로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예: 전화보급률)도 많다. 그리고 시·군 통계연보는 도 단위와는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지만 전국 단위 관련 통계자료와는 연계성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지(市·郡誌)의 경우는 부정기적이고 수록 내용이 시·군에 따라서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시·군 단위의 통계들은 ① 불필요한 지표가 많은 반면에 정말로 중요한 지표(예를 들면, 소득 관련 자료)는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② 지표 분야를 균형적으로 다루지 못하며, ③ 주관적 또는 질적 지표는 별로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제 4 장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관의 삶의 질 지표체계 검토

일반적으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물질적(경제적) 풍요로움이 어느 수준이 되면 고조된다. 경제성장(예: GNP 또는 1인당 GNP)이 그대로 국민의 삶의 질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단계를 이미 50~60년대에 경험한 선진국들은 이때부터 단순한 물량위주로부터 양적·질적으로 향상된 삶, 즉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다. 즉,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삶의 질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들 선진국에서는 긴박하고도 당면한 문제가 경제적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질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이른바 사회개발의 관심이 확대됨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가 비롯되었다. 즉,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현대 대중생활의 관심이 양적 문제인 경제문제에서 질적 문제인 사회 및 환경문제로 확대되었다(김영섭, 1994).

국제기관에서도 국가간의 비교를 위해 여러 가지 사회지표를 개발하여 이들 지표를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단계가 상이한 선·후진국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과 측정방법이 정립된 상

태는 아니며, 아직도 학술적으로 정립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독일, 스웨덴 등의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본다. 아울러 국제연합사회개발연구소(UNRISD)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국제기관들이 개발하여 권고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도 개략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관의 삶의 질 지표체계에 대한 검토작업은 이 연구에서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의 부문 및 관심영역 그리고 개별 지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주요 선진국의 삶의 질 지표체계

1.1. 미국

1970년대 중반에 수행된 미국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Terlecki, 1975)는 삶의 질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재화를 통하여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미국의 삶의 질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사를 국가목표연구를 포함한 수많은 연구로부터 도출하였다. 도출된 사회적 관심사는 개인적 및 집단적 활동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각 관심은 개인 및 민간의 시장활동뿐만 아니라 주요 정부활동을 그 요건으로 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시된 지표체계는 건강과 안전, 교육·훈련·생활수준, 소득, 경제적 형평, 삶의 터전, 예술·과학·자유시간의 6개의 관심사로 구성된다. 관심사별로는 2개 이상의 하위 관심영역을 포함하여 총 18개의 관심영역으로 나뉘고, 관심영역에 함축된 중요 목표의 성취 수준을 직접 나타내는 22개의 지표체계가 제시되

어 있다.

한편, 1980년에 발표된 미국의 사회지표체계(Social Indicators III)는 미국사회의 당시 상태와 다가올 변화의 성격을 알려 주는 주요 추세 및 발전을 서술하고 있는데, 삶의 질과 직접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인구·가족, 건강·영양, 주거·환경, 교통, 공안, 교육·훈련, 사회참여, 문화·여가·시간이용, 노동, 사회보장과 복지, 소득과 생산성의 11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이는 다시 58개의 세부 목표영역으로 이루어지는 지표체계이다. 또한, 삶의 관심사에 대한 중요성 및 만족도를 조사한 ‘행복한 삶의 질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지표체계의 목표영역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 지표체계의 특징은 각 부문별로 주관적인 평가로서 ‘공적인 인식’을 공통적으로 조사하고, 산출 가능한 지표에 대하여는 국제비교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1980년 이후로는 국가 수준의 지표 작성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주 단위 또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삶의 질 연구는 활발한 편이다.

캔트릴(Ablert H. Cantrill)과 롤(Charles W. Roll)은 1971년에 발간한 『미국인의 희망과 불안』(The Hopes and Fears of the American People)에서 삶의 질의 관심영역을 적극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Commerce and Census, 1980). 적극적인 면(개인의 희망)으로는 자신의 양호한 건강, 보다 나은 생활수준, 세계평화, 자식들에 대한 기대성취, 행복한 가정생활, 가족의 건강, 자신의 주택의 소유 또는 더 나은 것의 기대, 마음의 평화, 여가, 노령기의 행복, 마음에 맞는 직업근로, 취업, 인플레이션으로부터의 해방, 가정에 대한 기타 일반관심사항 등을 지적하였다. 부정적인 면(개인의 불안)으로는 자신의 건강악화, 생활수준의 하락, 전쟁, 가족의 건강악화, 실업, 인플레이션, 자식들의 불행, 가족의 마약중독, 공

해, 정치적 불안정, 불안감, 범죄 등을 지적하였다.

마란스와 딜만(Marans and Dillman, 1980)은 「미국농촌의 삶의 질의 인지」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삶의 질의 영역별 관심 사항을 13가지(전반적인 지역사회의 질(전반적인 만족도 및 평가), 전반적인 이웃의 질, 이웃 간의 사생활 보호, 도로와 통행로, 공공의 안전과 경찰, 소방, 쓰레기 처리, 공원과 여가, 대중교통, 공립학교, 건강, 일반적인 생활편의시설, 공해)로 제시하였다.

한편, 삶의 질에 관한 주관적 지표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캠벨(Angus Campbell, 1981)의 「미국에 있어서의 복지감: 최근의 유형과 추세」가 있다. 그는 ‘복지의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삶의 영역별 관심 분야로 높은 지위의 향유, 결혼상황, 가족과 친구의 소유, 일거리의 소유, 취업여성의 존재, 주거장소, 미국에서의 생활, 수명, 개인의 특성과 자아감각의 9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삶의 질의 전반적 관심 분야로서 행복(well-being)과 불행(ill-being)의 3대 요소로 ① 소유의 욕구, ② 관계의 욕구, ③ 존재의 욕구를 제시하며, 이들 세 가지 욕구의 높고 낮음을 측정한다.

미국은 주 단위로 삶의 질 관련 사회조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버지니아 사회조사(Virginia Survey)를 들 수 있다. 이 조사는 1992년부터 버지니아 공대(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의 사회조사연구센터(The Center for Survey Research)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층화 무작위 표출(stratified random sample) 방식으로 뽑은 버지니아 거주민 2,000명이다. 조사방법은 전화 면접조사이며 면접 성공률은 50% 이하이다. 버지니아 사회조사에서 다루는 내용으로는 버지니아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행복감, 그리고 가족생활, 일 및 고용, 건강 및 보건, 교육, 치안 및 안전, 환경 등에 대한 만족도를 다루고 있다. 버지니아 사회조사는 삶의 질의 주관적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기존의 사회지표들이 기본적으로 객관적·양적 지표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삶의 질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관심영역이나 표현방법 등도 상이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운데, ‘건강’, ‘교육’, ‘취업’, ‘주거’, ‘여가’, ‘소득’ 등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빼놓을 수 없는 인간생활의 기초적인 관심사항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삶의 질의 객관적 측면뿐만 아니라 주관적 측면도 함께 중시하고 있다.

1.2. 일본

일본은 국민생활의 내용과 변화는 물론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도록 고안된 사회통계와 사회지표로서 사회생활통계지표, 신국민생활지표, 소비생활통계 등을 작성하고 있다.

『사회생활통계지표』(총무청 통계국)는 지역별로 작성하여 발표되는데 국제연합의 『사회·인구통계체계』를 수용하여 1976년부터 작성되고 있다. 이 사회생활통계지표는 13개 부문(자연환경, 인구·세대, 경제기반, 재정, 학교교육, 노동, 가계, 사회교육·문화·스포츠, 거주환경, 사회보장, 건강·의료, 안전, 생활시간의 배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민전체, 가계, 개인의 생활을 총망라하여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국민생활통계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민생활심의회에서는 1986년에 『국민생활지표』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대폭 개편한 것이 『신국민생활지표』(경제기획청 국민생활국)이다. 이 지표는 생활지표로서의 활동영역지표와 구조변화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활동영역은 8개 영역(주거, 소비, 노동, 양육, 건강, 여가, 교육, 교제)으로 구분되고, 구조변화지표는 5개 영역(고령화, 국제화, 집중화, 정보·서비스화, 그린화)으로 나뉜다. 신국민생활지표는 개인생활의 활동에 착안하여 활동영역을 선정하였

다는 특징이 있다.

1.3. 독일

독일의 사회지표체계는 1970년대 중반 이전에 볼프강(Wolfgang Zapf)의 주도 하에 ‘사회·정치적 결정과 지표’(Socio-political Decision and Indicators)가 개발되었다. 1978년 이후로 이 지표체계는 만하임(Mannheim)에 있는 사회조사연구센터(Center for Survey Research and Methodology)의 사회지표국(Department of Social Indicators)에 의해 계속 갱신·발전되었다. 현재 독일의 사회지표체계는 13개 생활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인구, 사회경제적 지위 및 주관적 계급 인식, 노동시장 및 근로생활, 소득 및 소득분배,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 및 소비, 교통, 주택, 교육, 건강, 참여, 환경, 공안 및 범죄, 여가 및 대중매체이용 등이다. 각각의 영역은 다시 몇 개의 세부영역 및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총 지표수는 대략 300개 정도이다.

주관적 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국제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조사를 촉발시켰는데, ‘삶의 질 조사(Quality of Life Survey)’, ‘복지조사(Welfare Survey)’ 및 ‘종합조사(Comprehensive Survey)’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조사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따라 ‘복지조사(Welfare Survey)’가 1978년부터 시작되었다.

독일의 사회지표는 객관적 생활의 조건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주관적 평가를 중시한다. 그리고 독일의 사회지표는 개인 복지에 중점을 두며, 정책 지향적이고, 포괄적이며, 장기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1.4. 스웨덴

ULF(*Undersökningar av Levnadsförhållanden*)는 스웨덴 통계국(Statistics Sweden)의 복지분석프로그램(the Welfare Analysis Program)의

일환으로 추진된 종합조사체계로서, 1974년에 고정 표준화조사로 시작되었다. 후에 총합조사체계로 확대 전환되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ULF는 4개의 주제별 조사의 연례자료수집 형태로 설계되었는데, 각각의 주제별로 자료수집에 24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8년 후에 전체 프로그램이 다시 반복된다. 표본 수는 15,200명(16~84세)이다. 각 조사는 12개 사회영역의 약 120개의 사회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사회적 수준에서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들이 많이 있다. 사회적 삶의 질 측정의 보편적인 시스템의 한 예가 스웨덴 생활수준조사(the Swedish Level of Living Survey)이다(Robert, 1993). 이 척도의 뒤에 깔려 있는 이념은, 어떤 나라의 삶의 질은 그 국민이 화폐, 소유, 지식, 물리적 에너지, 사회 관계의 형태로 자원들을 통제할 때 높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활조건을 조절하고 의식적으로 방향전환하기 위하여 자원을 이용한다. 이 척도는 다음과 같은 9개의 범주로 구성된다(Sirgy, 2001: 123): ① 건강 및 보건의료의 접근성(예, 100m를 걷는 능력, 다양한 질병 징후, 의사 및 간호사와의 접촉), ② 고용 및 작업조건(예, 실업경험, 육체적 노동 수요, 작업시간동안 작업장을 떠날 가능성), ③ 경제적 자원(예, 소득 및 부, 재산, \$1,000까지 지불할 능력), ④ 교육 및 기술(예, 교육 년수), ⑤ 가족 및 사회통합(예, 결혼상태, 친구 및 친척과의 접촉), ⑥ 주거(예, 방 당 사람 수, 쾌적성), ⑦ 생명과 재산의 안전(예, 폭력 및 도난에의 노출), ⑧ 여가 및 문화(예, 여가시간, 휴가여행), ⑨ 정치적 자원(예, 투표참여, 노동조합 및 정당의 회원, 불평을 다스리는 능력).

삶의 질에 관한 스웨덴의 지표체계는 사회계획을 위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기 위한 객관적 지표를 특히 중시하고 있다. 인식, 만족도, 행복감 등과 같은 삶의 질의 주관적 측면은 삶의 질 지표체계에

서 보충적인 범주로만 다루어지고 있다.

1.5. 호주

호주에서는 컴민스(Robert A. Commins)가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 지표는 물질적 행복(well-being), 건강, 생산성, 친교, 안전, 지역 사회 및 감정적 행복의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은 3개의 객관적 척도와 2개의 주관적 척도로 구성된다. 각 영역의 3개의 객관적 척도는 합해질 수 있으며, 영역 합계는 객관적 행복의 단일 척도가 된다. 각 영역의 주관적 척도의 하나는 만족도 척도(7점)이며, 다른 하나는 중요성 척도(5점)이다. 각 영역의 만족도 점수와 중요성 점수를 곱한 값은 해당 영역의 주관적 삶의 척도이며, 7개의 값을 합하면 주관적 행복의 단일척도를 구할 수 있다.

2. 국제기관의 삶의 질 지표체계

2.1. 국제연합사회개발연구소(UNRISD)

국제연합사회개발연구소(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on Social Development: UNRISD)의 지표체계는 사회지표의 개념을 일반적인 복지와 사회적 관심을 동시에 고려한 측정치로서 나타내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출발하여 복지의 종합지수화를 시도하고 있다(Drenowski, 1970).

삶의 질은 流量(flow)으로서의 생활 수준과 貯量(stock)으로서의 복지 수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고, 각각의 구성요소와 지표를 선정하여 계수화하고, 이들을 단일지수로 종합화하는 형태로 고안되었다. 여기에서 생활수준은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의 결과로서 단위시간당

욕구충족의 수준'으로 정의했다. 구성요소로는 처음에는 영양, 주거, 건강, 교육, 여가, 안전, 환경의 7가지를 제시하였으나, 후에 '의(의류 사용)'요소가 추가되고, '건강'은 '보건(의료 서비스 수혜)'으로 수정되고, '환경'은 '사회적 환경(사회적 접촉과 레크리에이션)'과 '물리적 환경'으로 분리되어 전체적으로는 9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지표는 27개로 구성되었다. 한편 복지 수준은 '일정 시점에서 개인 및 인구집단이 욕구에 대한 결과로서 인지된 상태'로 정의하고, 구성요소는 건강 상태(육체적 발달수준), 교육상태(정신적 발달수준), 사회상태(사회통합과 참여)의 3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측정하는 구체적인 지표는 10개로 구성되었다.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27개 개별지표들의 측정기준은 '견딜 수 없음', '부적절', '적절', '풍족'이며, 복지수준을 나타내는 10개 개별지표들의 측정기준은 '결핍', '불충분', '충분', '풍요'의 4가지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이들 개별 지표들은 욕구에 대한 충족의 정도에 따라 가중치가 주어지고 이들을 합산하여 종합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효용 측정의 문제라든가 각 지표 치에 대한 임의적 평점 설정 등에 대하여 비판을 받고 있으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지표에 가중치를 주어 단일지수로 종합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2.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국제연합개발계획(UNDP)는 국가의 부에 대한 재조명과 전통적인 경제발전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수명, 교육수준, 국민소득 등에 관한 각 국의 주요 통계를 이용하여 인간개발에 대한 성취도를 평가하는 지표를 발표하였다. 인간개발의 범주를 구성하는 원칙으로 ① 노동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생산성, ② 경제적, 정치적 참여기회에 대한 형평성, ③ 물적, 인적, 환경적 자원의 세대

간 지속가능성, ④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권리의 획득을 지적했다.

2.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삶의 질’ 지표체계인 ‘사회적 관심사’는 성장 자체보다는 성장의 질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 하에 사회지표개발계획(Social Indicator Development Programme)이 시작되면서부터 구체화되었다. 1972년에 복지(well-being)를 구성하는 주관적인 요소에 관한 연구를 거쳐 1973년에는 사회적 목표를 표준화하여 정의하고, 가장 필요한 지표를 체계화하고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한 결과를 보고서(OECD, 1973)로 발간하였다.

사회적 관심체계는 건강, 학습에 의한 개인의 능력개발, 고용 및 근로생활의 질, 시간과 여가, 재화와 서비스의 지배력, 물리적 환경, 개인안전과 법의 집행 및 사회적 기회와 참여의 8개 분야로 구분되고, 이들은 다시 24개의 관심영역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기본적 관심사들은 각각 하나 이상의 보충적 관심사를 수반하나, 보충적 관심사는 통계적 표현을 취하기 어려워 기본적 관심사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통계적으로 표시 가능한 지표체계가 1982년에 제시되었다. 이 지표체계는 8개 관심 분야(건강, 교육과 학습, 고용 및 근로생활의 질, 시간과 여가, 재화와 서비스의 지배력, 물적 환경, 사회적 환경, 개인의 안전) 15개 영역 33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특히 회원국에 대한 지표 값의 산출을 위한 통계적인 측정 가능성을 배려하여 개관적인 지표계열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었다.

2.4. 세계보건기구(WHO)

1991/1992년기간 제네바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주관 하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삶의 질 측정도구의 개발을 위한 일련의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삶의 질’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채택하였다. 삶의 질이란 “자신들의 문화 및 가치체계의 관점과 그들의 목표, 기대, 표준 및 관심의 관점에서 자신의 지위(위치)에 대한 개인들의 인식 정도”를 말한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삶의 질에 대한 광의적인 접근이며 개인의 육체적 건강, 정신상태, 독립 정도, 사회적 관계, 신뢰 및 환경과의 관계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정의는 삶의 질은 문화적, 사회적 및 환경적 부문에 내재되어 있는 주관적 평가를 뜻한다는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삶의 질은 단순히 ‘건강상태’, ‘생활형태’, ‘생활만족’, ‘정신상태’, 혹은 ‘행복(well-being)’이라는 말과 동일시될 수 없다. 오히려 생활의 여러 측면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종합하는 다면적 개념이다. 세계보건기구의 삶의 질 지표는 6가지 영역(물리적 측면, 심리학적 측면, 독립성의 정도, 사회적 관계, 환경, 정신적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이 지표체계는 보건측면을 강조하는 삶의 질의 주관적 지표체계라고 평가된다.

3. 시사점

1970년대 들어 선진국들은 경제성장이 그대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보고, 생활 수준의 질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국제기관도 각국의 삶의 질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삶의 질에 관한 각종 지표체계를 개발·제시하였다. 그러나 국가마다 시도하는 목적과 관점에 따라 관심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제시되는 지표체계도 다양하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건강, 교육, 취업, 주거, 여가, 소득 등은 공통적인 것들로서 삶의 질을 파악하는 기본적인 관심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표체계들이 삶의 질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은 대부분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국가 간의 비교를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으며,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도·농간의 비교를 목적으로 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선진외국의 이론과 경험을 참고하되, 우리의 목적에 적합한 지표체계를 수립하여 관심영역 및 관련지표들을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사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제 5 장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총 2회에 걸쳐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에 대한 관련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은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 개발의 기본방향, 지표 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각 지표의 적합성 등이다.

먼저 제1차로 총 100명의 삶의 질 지표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도하였으나 그 중에서 35명만이 응답을 하였다(응답 회수율 35%). 이 조사에서는 6개 부문 총 102개 지표에 대한 적합성 정도를 파악하려고 하였다(표 5-1 참조).

제2차 전문가 조사는 제1차 전문가 조사에서 응답한 사람 35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에서 20명이 응답을 하였다(응답 회수율 57.1%). 제2차 전문가 조사에서는 6개 부문 총 105개 지표(표 5-2

참조)에 대한 추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자들에게 부문별로 대표지표를 4~5개씩 추천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표 5-1. 제1차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적용된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

지표부문	지표 수
경제적인 삶	22
건강한 삶	15
안전한 삶	10
편리한 삶	25
쾌적한 삶	10
사회·문화적 삶	20
지표 수 합계	102

표 5-2. 제2차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적용된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

지표부문	지표 수
경제적인 삶	20
건강한 삶	15
안전한 삶	15
편리한 삶	20
쾌적한 삶	15
사회·문화적 삶	20
지표 수 합계	105

2.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 관련 전문가는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 농업인단체, 담당 공무원들의 명단을 입수하여 전공분야, 경력, 농업·농촌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들이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련 학회 및 단체로부터 적격자를 추천받아 전문가 선정에 활용하였다.

<표 5-3>에는 제1차 전문가 의견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의 일반적 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35명의 응답자 중 대학원을 졸업한 응답자가 80.0%이고, 전체 응답자의 62.9%가 남자이다. 응답자의 전공 분야는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34.3%), 사회학·사회복지학(22.9%), 경제학·농업경제학(22.9%), 교육학·농업교육학(8.5%), 기타(11.4%)이다. 즉, 전문가 의견조사의 응답자들은 비교적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임을 알 수 있다.

표 5-3. 전문가 집단의 주요 인적 사항(1차 전문가조사 기준)

N = 35

구분	범주	빈도(%)
학 령	고졸	2(5.7)
	대졸	5(14.3)
	대학원졸	28(80.0)
성 별	남자	22(62.9)
	여자	13(37.1)
전공분야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	12(34.3)
	사회학·농촌사회학	8(22.9)
	경제학·농업경제학	8(22.9)
	교육학·농업교육학	3(8.5)
	기타	4(11.4)

3. 전문가 의견조사의 주요 결과

3.1.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 전반에 대한 의견

먼저 “정부나 연구기관 등에서 발행하고 있는 통계자료집에 농촌주민의 삶의 질 관련 통계가 어느 정도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의견은 <표 5-4>에 제시되어 있다. ‘어느 정도 제시되어 있다’는 응답자는 17.1%인 반면, 응답자의 60.0%가 ‘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응답자의 22.9%는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표 5-5>에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체계의 기본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1순위로 중시되어야 할 것)이 제시되어 있다. 응답자들은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 개발의 기본방향으로 “농촌주민의 삶의 특수성을 잘 반영해야 함”(45.7%), “도시·농촌간 또는 지역별 비교를 감안해야 함”(14.3%),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적절하게 병용해야 함”(14.3%), “농촌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

표 5-4. 기존 통계자료집의 농촌주민의 삶의 질
관련 통계 제시 정도

응답범주	백분비(%)
어느 정도 제시되어 있다	17.1
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60.0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다	22.9
계	100.0

표 5-5.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 개발의 기본방향

응답범주	백분비(%)
일반 국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함	11.4
도시·농촌간 또는 지역별 비교를 감안해야 함	14.3
농촌주민의 삶의 특수성을 잘 반영해야 함	45.7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적절하게 병용해야 함	14.3
농촌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함	14.3
계	100.0

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함”(14.3%), “일반 국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함”(11.4%)의 순으로 강조하였다.

3.2.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부문별 주요 의견

3.2.1. 경제적인 삶 부문

‘경제적인 삶’ 부문의 삶의 질 지표체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농작업 사고 관련 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② 부채 총액도 중요하지만 부채의 성격도 중요함, ③ 생산성 부채인지 소비성 부채인지 그리고 악성 부채화의 수준도 조사할 필요가 있음, ④ 농촌의 실업은 도시의 실업과 차이가 많음을 고려해야 함, ⑤ 부동산에 대한 지표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⑥ 농업소득은 연간 소득으로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임, ⑦ 노후생활 준비 정도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3.2.2. 건강한 삶 부문

‘건강한 삶’ 부문의 삶의 질 지표체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① 기존에 개발된 지표들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 ② 진료일수의 많고 적음은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가 좋고 나쁨에 따른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음, ③ 농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항목이 요구됨, ④ 농부증을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음, ⑤ 응급의료에 관한 것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3.2.3. 안전한 삶 부문

‘안전한 삶’ 부문의 삶의 질 지표체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농작업·시설의 안전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②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이 중요함, ③ 안전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④ 풍수해뿐만 아니라 기타 자연재해도 포함시켜야 함, ⑤ 농약중독, 도난 등에 관한 지표도 추가하기 바람, ⑥ 농산물 가격 변화에 대한 불안감도 중요함.

3.2.4. 편리한 삶 부문

‘편리한 삶’ 부문의 삶의 질 지표체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시장, 상점의 근접성과 행정서비스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② 오토바이 대수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③ 식수공급 방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④ 고령자들의 삶의 질이나 생활을 좀 더 고려해야 함(영농교육, 영농기술, 시장 및 유통정보, 건강교육 등을 감안할 것), ⑤ ‘편리한 삶’의 포괄범위가 너무 넓음, ⑥ 가구별 자녀의 도시유학 비율 등을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⑦ 교육 년수에 관계없이 문해 수준이 중요함.

3.2.5. 쾌적한 삶 부문

‘쾌적한 삶’ 부문의 삶의 질 지표체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관심영역이 너무 추상적이므로 대기, 수질, 토

양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② 소음에 관한 것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③ 지역사회의 쾌적한 정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추가해야 함.

3.2.6. 사회·문화적 삶 부문

‘사회·문화적 삶’ 부문의 삶의 질 지표체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전통문화에 관한 것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② 이웃관계에 관한 지표도 필요함, ③ 친구관계에 관한 지표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④ 노후보장에 관한 것은 다른 분야로 옮기는 것이 좋겠음, ⑤ 종교활동에 관한 것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⑥ 인구 및 가족은 배경적인 지표이므로 따로 분리하는 것이 좋겠음.

3.2.7. 기타 의견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 시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기타 의견으로는 ① 각 부문간 각 관심영역간의 중요도에 따서 가중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② 농촌노인들의 응답능력을 잘 감안해야 함, ③ 농촌주민의 특수성을 잘 반영해야 함, ④ 농촌주민은 농업인과 비농업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⑤ 연령별 조사·분석이 중요함, ⑥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가 정기적으로(가능한 매년) 조사·분석되어야 함, ⑦ 지역 단위나 가구 단위의 수집자료와 개인 단위의 수집자료를 합리적으로 잘 합쳐야 함, ⑧ 농촌의 지역적 특성을 잘 감안해야 함.

3.3.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 조정에 있어서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의 활용 내역

2차례의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의 기본방향, 삶의 질 부문, 관심영역, 개별 지표의 추가, 수정, 삭제 등에 활용되었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의 기본방향 설정에서는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특수성을 잘 반영해야 함’, ‘도시·농촌간 또는 지역별 비교를 감안해야 함’,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함’ 등을 강조하였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부문의 조정에서는 전문가 델파이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경제적인 삶’ 부문에서 복지를 분리하였다. 그리고 ‘편리한 삶’ 부문의 포괄범위가 너무 넓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을 분리하였다. 그리하여 복지와 교육을 묶어서 ‘안정된 삶’ 부문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또한, ‘사회·문화적 삶’은 ‘즐거는 삶’으로 개칭하였다.

관심영역의 조정에 있어서는 전문가 델파이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경제적인 삶’의 ‘노동’ 부문의 ‘고용구조’를 ‘경제활동’으로 대치하였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삶’의 ‘사회’ 부문의 인구 및 가족을 제외하고 이웃 및 친구관계를 추가하였다.

개별 지표의 추가, 수정, 삭제 과정에서도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를 충분히 활용하였다. 먼저,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의 적절성(반영도) 평가 결과가 낮게 나온(평균 3.5점을 기준으로 함) 지표를 구분하였다. 즉, 각 지표마다 해당 분야의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를 전문가들에게 평가하도록 하였다. 즉, 각 지표는

5점 척도(잘 반영, 대체로 반영, 보통, 별로 반영 못함, 거의 반영 못함)를 적용하였다(부록 1 참조). 그 결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의 적절성(반영도) 평가 결과가 낮게 나온 지표로는 ‘경제적 삶’ 부문에서는 4개 지표(가구당 월 평균 전력 소비량, 영농종사 기간, 실업률,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건강한 삶’ 부문에서는 1개 지표(영아사망률), ‘안전한 삶’ 부문에서는 1개 지표(경찰관 1인당 인구수), ‘편리한 삶’ 부문에서는 3개 지표(주택소유 형태, 정보 및 통신 수준에 대한 만족도, 통근 및 통학 교통수단), ‘쾌적한 삶’ 부문에서는 2개 지표(환경오염 방지 노력, 친환경농업 실천), ‘사회·문화적 삶’ 부문에서는 2개 지표(노후준비 정도, 노후준비 방법)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지표들은 최종 지표 선정과정에서 대부분 제외하였다.

전문가 델파이조사에 있어서 개별 지표들에 대한 의견들도 다수 의견을 중심으로 수용하였다. ‘경제적인 삶’ 부문에 있어서는 농작업 사고 관련 지표는 최종 지표체계의 ‘안전한 삶’ 부문에서 ‘농기계사고 경험’이라는 지표로 반영하였다. 부채의 성격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부채규모’의 최종 지표에서 부채의 용도와 차입 처를 구분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농촌의 실업과 도시의 실업은 그 의미가 많이 다르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실업률’ 지표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델파이조사 의견에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지표(부동산 규모)를 1개 추가했으며, 농업소득은 연간소득으로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수용하여 가구소득(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의 합계)은 연간의 개념으로 조정하였다. ‘건강한 삶’ 부문에서는 전문가 델파이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지표체계에서 ‘농부증’과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를 좀 더 구체화하였다. ‘안전한 삶’ 부문에서는 전문가 델파이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지표체계에서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에 대한 만족도’와 ‘농산물 가격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추가하였으며, ‘풍수해 피해 정도’를 ‘자연재해 경험’ 및 ‘자연재해에 대

한 두려움 정도'로 대치하였다. '편리한 삶' 부문에서는 지표의 포괄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지표의 수를 줄였으며,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추가하였다. '쾌적한 삶' 부문에서는 전문가 델파이조사 의견을 수용하여 '주관적 소음·진동 오염도', '주관적 악취 오염도', '지역사회생활의 쾌적성에 대한 만족도'를 추가하였다. '안정된 삶' 부문에서는 전문가 델파이조사 의견을 수용하여 '노후생활 준비', '도시 유학생 여부'를 추가하였다. '즐거는 삶' 부문에서는 전문가 델파이조사 의견을 수용하여 '전통 민속문화의 계승', '이웃관계', '친구관계', '종교활동'을 추가하였다.

제 6 장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 시안의 문제점 파악을 위한 주민조사 결과

1. 농촌 주민조사 개요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 시안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현지 주민조사는 6개 지역(경기도 양평 및 광주, 강원도 정선, 충북 보은, 충북 진천, 충남 예산)의 농촌주민 60명을 대상으로 80개 문항(가구 및 개인 대상 지표를 중심으로)에 대하여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6-1>에는 현지 주민조사 지역 및 대상자 수가 제시되어 있다. 도시근교 농촌 지역인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 그리고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서하리 및 무갑리에서 각각 10명의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하였다. 평야지역인 충북 진천군 초평면 진암리 및 용산리 그리고 충남 예산군 응봉면 노하2리 및 송석리에서 각각 10명의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하였다. 산간지역인 강원도

표 6-1. 현지 주민조사의 대상지역 및 대상자 수

구 분	조사지역	조사 대상자 수
도시근교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	10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서하리·무갑리	10
평야	충북 진천군 초평면 진암리·용산리	10
	충남 예산군 응봉면 노하2리·송석리	10
산간	강원도 정선군 남면 유평1리·무릉2리	10
	충북 보은군 마로면 갈평1리·송현리	10
계		60

정선군 남면 유평 1리 및 무릉 2리 그리고 충북 보은군 마로면 갈평 1리 및 송현리에서 각각 10명의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하였다.

2.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표 6-2>에는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성별은 남자가 43.3%, 여자가 56.7%이다. 연령은 30대 이하가 15.0%, 40대가 33.3%, 50대가 18.3%, 60대가 25.0%, 70대 이상이 8.4%로 연령계층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41.7%, 중졸이 15.0%, 고졸이 33.3%, 대졸 이상이 10.0%이다. 영농 여부는 농가가 83.3%, 비농가가 16.7%이다. 주 작목은 벼, 축산, 과수, 채소, 잡곡 및 기타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거주지역은 도시근교, 평야, 산간 지역에 골고루 안배되어 있다. 즉, 응답자들은 성별, 연령, 학력, 영농 여부, 주 작목, 거주지역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표 6-2.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N = 60

구분	응답범주	백분비(%)
성별	남	43.3
	여	56.7
연령	30대 이하	15.0
	40대	33.3
	50대	18.3
	60대	25.0
	70대 이상	8.4
학력	무학	16.7
	초등졸	25.0
	중졸	15.0
	고졸	33.3
	대졸 이상	10.0
영농 여부	농가	83.3
	비농가	16.7
주 작목	벼	23.3
	축산	16.7
	과수	18.3
	채소	16.7
	잡곡 및 기타	8.3
	비 농가	16.7
거주지역	도시근교	33.3
	평야	33.3
	산간	33.3

3. 농촌주민조사에서 파악한 삶의 질 지표체계 시안의 문제점

현지 주민조사에서 파악한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 시안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경제적인 삶’ 부분의 문제점으로는 ① 여성 및 노령 층 대상의 가구소득 조사가 어려움, ② 이전수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③ 생활비는 주요 항목별로 조사하여 합치는 전략이 필요함, ④ 저축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함, ⑤ 채소농가의 소득변동이 극심함, ⑥ 은행의 자동이체제도를 이용하는 가정에서는 월 평균 국민건강보험료를 잘 기억하지 못함, ⑦ 민간(개인)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⑧ 비농가는 은퇴농인 경우가 많음 등을 들 수 있다.

‘건강한 삶’ 부분의 문제점으로는 ① 건강유지 방법에 대한 주요 범주 예시가 필요함, ② 음주의 빈도 및 주량에 대한 범주화가 필요함, ③ 공공체육시설 이용은 별 의미가 없는 지표로 나타남 등을 들 수 있다.

‘안전한 삶’ 부분의 문제점으로는 ① 전화폭력 경험에 대한 빈도도 점검할 필요가 있음, ② 도시근교일수록 안전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음, ③ 성희롱 경험은 조사하기 어려움, ④ 자연재해의 종류를 설명할 필요가 있음, ⑤ 안전사고의 경우도 농기계사고, 농약중독, 해충사고 등을 예시할 필요가 있음 등을 들 수 있다.

‘편리한 삶’ 부문의 문제점으로는 ① 전화요금, 이동통신 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을 정보·통신비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 ② 마을의 가로등 수는 별 의미가 없는 지표로 나타남, ③ 이웃관계는 사회·문화적 삶 분야로 옮길 필요가 있음 등을 들 수 있다.

‘쾌적한 삶’ 부문의 문제점으로는 ① 쓰레기 분리 수거는 좀 더 세분화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음, ② 친환경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등을 들 수 있다.

‘사회·문화적 삶’ 부문의 문제점으로는 ① 공연장 및 전시장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함, ② 여행 경험은 국내와 국외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③ 여가활동에 대한 예시가 필요함, ④ 가족 형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인구·가족 부문으로 옮길 필요가 있음, ⑤ 가사분담은 노동부문이므로 경제적인 삶 분야로 옮길 필요가 있음, ⑥ 사회단체 참여는 몇 가지 범주별로 나누어서 조사할 필요가 있음 등을 들 수 있다.

4.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 조정에 있어서 현지 주민조사 결과의 활용 내역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특히 개별 지표의 경우) 조정에 있어서 현지 농촌주민조사 결과의 활용 내역을 삶의 질 부문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인 삶’ 부문에서는 ‘가구소득’에 있어서 이전수입의 의미와 예를 명확히 하기로 하였다. 저축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저축 규모’를 가구별 예금 및 적금 등의 저축 총액으로 규정하였다. 가구 당 월 평균 생활비는 50만원 미만이 응답자의 12.3%, 50~100만원 미만이 14.0%, 100~150만원 미만이 22.8%, 150~200만원 미만이 19.3%, 200

만원 이상이 31.6%로 계층별 변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3의 <부표 3-3> 참조). 그러므로 ‘가구소득’과 ‘가구 당 월 평균 생활비’가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 지표체계에서도 같이 활용하기로 하였다. ‘현재 경제사정에 대한 평가’, ‘장래 경제사정에 대한 전망’, ‘소득 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직업만족도’ 등의 지표는 농촌주민조사 과정에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 지표체계에 그대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건강한 삶’ 부문에서는 음주의 빈도 및 주량의 빈도를 명확히 하였다. 농촌주민조사에서 농부층은 음성(0~2점)이 36.7%, 의심(3~6점)이 26.7%, 양성(7~16점)이 36.7%로 선행연구 결과들과 유사한 분포를 나타냈다. 따라서 농부층은 최종 지표체계에서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이용’은 농촌주민들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응답자의 85.5%가 공공체육시설을 전혀 이용하지 않음)으로 나타나 최종 지표체계에서 제외하였다.

‘안전한 삶’ 부문에서는 일부 전문가들이 도시 위주의 지표라고 평가하는 ‘전화폭력 경험’은 농촌주민조사에서 응답자의 41.7%가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 지표체계에서도 그대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성희롱 경험’은 현실적으로 조사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최종 지표체계에서 제외하였다. 자연재해와 관련해서는 최종 지표체계에서는 자연재해의 종류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편리한 삶’ 부문에서는 전화요금, 이동통신 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을 최종 지표체계에서 정보·통신비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마을의 가로등 수는 마을마다 천차만별(1~50개)인 것으로 나타나 최종 지표체계에서는 제외하였다.

‘쾌적한 삶’ 부문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준거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 최종 지표체계에서는 ‘음식쓰레기 처리 방법’과 ‘재활

용품 처리 방법'으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사회·문화적 삶' 부문에서는 일부 전문가들이 도시적 지표라고 평가하는 '공연장·전시장 관람'의 경우 농촌주민의 25.0%가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최종 지표체계에서 그대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사회단체 참여'는 참여하고 있는 사회단체 수가 응답자에 따라서 1~17개로 나타나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최종 지표체계에서는 몇 가지 범주로 나누기로 하였다.

제 7 장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

1.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의 기본방향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를 개발하는 목적은 농촌주민의 입장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농촌주민의 삶의 특수성을 잘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일 많았음)와 삶의 질의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수용능력접근(capability approach)에 근거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즉,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의 기본방향으로는 ① 농촌주민의 삶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고, ② 도시·농촌간 또는 지역별 비교를 감안하며, ③ 농촌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 ④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적절하게 병용하고, ⑤ 일반 국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조사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 등을 고려하였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최종안)는 7개 부문(경제적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편리한 삶, 쾌적한 삶, 안정된 삶, 즐기는 삶)의 총 8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지표는 부문별로 3~4개씩 총 27개가 선정되었다. 대표지표는 관련 전문가조사 결과(대표지표로 선택된 빈도가 높은 지표를 우선적으로 선택함), 현지 농촌주민조사, 연구과제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농촌주민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2. 농촌주민의 삶의 질의 부문 및 관심영역

<표 7-1>에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의 부문 및 관심영역이 제시되어 있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은 7개 부문(경제적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편리한 삶, 쾌적한 삶, 안정된 삶, 즐기는 삶)으로 분류되어 있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7개 부문으로 분류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선행연구,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관의 지표체계 등을 참고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6개 부문(경제적인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편리한 삶, 쾌적한 삶, 사회·문화적 삶)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분류된 6개 부문에 대하여 델파이조사방법을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하였다. 즉, 삶의 질의 6개 부문과 관련하여 ‘추가해야 할 것’, ‘삭제해야 할 것’, ‘수정이 필요한 것’ 등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은 7개 부문(인구·가족, 경제적인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편리한 삶, 쾌적한 삶, 사회·문화적 삶)으로 조정을 하였다. 그러나 연구보고세미나, 정밀검

토과정 등에서 제시된 ① 방향성이 없는 인구·가족부문은 제외할 것, ② 복지 및 교육 부문은 ‘경제적 삶’ 및 ‘편리한 삶’으로부터 분리하여 새로운 삶의 질 부문을 편성할 것, ③ ‘사회·문화적 삶’은 ‘즐거는 삶’으로 개칭하는 것이 좋겠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의 7개 부문을 최종적으로 편성하였다. 이러한 분류 과정은 농촌주민의 삶의 질의 관심영역을 설정하는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경제적 삶 부문은 소득·소비, 노동 분야를 포괄하며, 관심영역으로는 소득수준, 소비수준, 경제활동의 안정을 들 수 있다. 건강한 삶 부문의 관심영역은 보건의료 인력 및 시설, 건강 상태 및 관리, 보건의료 서비스이다. 안전한 삶 부문의 관심영역은 범죄로부터의 안전, 범죄 이외의 사고로부터의 안전, 안전에 대한 의식 등을 들 수 있다. 편리한 삶 부문은 주거, 정보화, 교통 분야를 포괄하며, 관심영역으로는 주거상태, 주거의 질, 정보화 정도, 정보화에 대한 인식, 교통시설, 교통의 질을 들 수 있다. 쾌적한 삶 부문은 환경부문을 포괄하며, 관심영역으로는 환경압력, 환경의 질, 환경관리를 들 수 있다. 안정된 삶 부문은 교육, 복지 분야를 포괄하며, 관심영역으로는 교육기회, 교육자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복지 수준이다. 끝으로 즐기는 삶 부문은 문화 및 여가, 사회 분야를 포괄하며, 문화예술 활동, 여가활동, 이웃·친구 관계, 사회 참여를 들 수 있다.

표 7-1.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의 부문 및 관심영역

‘삶의 질’ 부문		관심영역
경제적 삶	소득·소비	소득수준 소비수준 경제생활의 안정
	노동	경제활동 근로조건
건강한 삶	보건의료	보건의료 시설 및 인력 건강 상태 및 관리 보건의료 서비스
안전한 삶	안전	범죄로부터의 안전 범죄 이외의 사고로부터의 안전 안전에 대한 의식
편리한 삶	주거	주거상태 주거의 질
	정보화	정보화 정도 정보화에 대한 인식
	교통	교통시설 교통의 질
쾌적한 삶	환경	환경압력 환경의 질 환경관리
안정된 삶	교육	교육기회 교육자원
	복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복지수준
즐거는 삶	문화 및 여가	문화예술활동 여가활동
	사회	이웃·친구 관계 사회참여

3.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

3.1. 경제적 삶 부문의 지표

<표 7-2>에는 경제적 삶 부문의 지표 12개가 제시되어 있다. 즉, 경제적 삶 부문의 지표로는 가구소득, 현재의 경제사정에 대한 평가, 장래의 경제사정에 대한 전망, 소득 만족도, 가구당 월 평균 소비지출, 소비생활 만족도, 저축규모, 부동산규모, 부채규모, 직업만족도, 평균 근로시간, 가사분담이 선정되었다.

경제적 삶 부문의 대표지표로는 가구소득, 소득 만족도, 직업 만족도, 평균 근로시간이 선정되었다.

조사 단위는 가구 단위가 6개 지표, 개인 단위가 6개 지표로 나타났다.

표 7-2. 경제적 삶 부문 지표

지표	조사 단위	지표의 산출 방식
가구소득	가구	가구당 연간소득(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진소득의 합계)
현재의 경제사정에 대한 평가 (5년 전과 비교)	개인	5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가구별 경제사정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관한 5점 척도
장래의 경제사정에 대한 전망 (5년 후 전망)	개인	5년 후에 가구별 경제사정이 어떻게 변할 것으로 전망 하는지에 관한 5점 척도
소득 만족도	개인	가구소득에 대한 주관적 만족 정도(5점 척도)
가구당 월 평균 소 비지출	가구	가구별 월 평균 생활비 지출액
소비생활 만족도	개인	소비생활 수준에 대한 만족 정도(5점 척도)
저축규모	가구	가구별 예금, 적금 등의 저축 총액
부동산규모	가구	가구별 부동산규모(주택, 대지, 전답, 과수원, 임야 등으 로 구분)
부채규모	가구	가구별 총 부채 액 - 용도(생산성, 소비성) 및 차입 처(공채, 사채)별 구분
직업만족도	개인	자신의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 정도(5점 척도)
평균 근로시간	개인	1일 평균 근로시간(농업, 가사, 비농업 부문 포함), 농번 기와 농한기 구분
가사분담	가구	가족과 가사 분담 정도
대표지표		가구소득
		평균 근로시간
		소득 만족도
		직업 만족도

3.2. 건강한 삶 부문 지표

<표 7-3>에는 건강한 삶 부문의 지표 12개가 제시되어 있다. 즉, 건강한 삶 부문의 지표로는 건강검진, 진료일수, 주관적 건강 평가, 농부증, 외병일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의료인력 1인당 인구수, 보건의료기관수, 병상 당 인구수, 보건의료 서비스 만족도, 흡연, 음주가 선정되었다.

건강한 삶 부문의 대표지표로는 주관적 건강 평가, 외병일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보건의료 서비스 만족도가 선정되었다.

조사 단위는 지역 단위가 3개 지표, 개인 단위가 9개 지표로 나타났다.

표 7-3. 건강한 삶 부문 지표

지표	조사 단위	지표의 산출 방식
건강검진	개인	지난 2년 동안 종합건강진단을 받은 경험 유무
진료일수	개인	지난 1년 동안 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총 일수(방문 또는 입원을 구분)
주관적 건강 평가	개인	자신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 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5점 척도)
농부증	개인	농부증 정도를 판단하는 8개 항목(어깨 결림, 요통, 손발 저림, 야간 빈뇨, 호흡 곤란, 불면증, 어지러움, 복부 팽만감)에 대하여 3점 척도를 적용
와병일수	개인	지난 1년 동안 총 와병일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개인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보건소, 민간 병·의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도보,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등으로 구분)
의료인력 1인당 인구수	지역	총 인구/의료인력 수
보건의료기관수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수(공공 및 민간 보건의료기관 모두 포함)
병상 당 인구수	지역	총 인구수/총 병상 수
보건의료 서비스 만족도	개인	지역 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각종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 정도(5점 척도)
흡연	개인	흡연 여부 및 빈도
음주	개인	음주 여부 및 빈도
대표지표		주관적 건강 평가
		와병일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보건의료 서비스 만족도

3.3. 안전한 삶 부문 지표

<표 7-4>에는 안전한 삶 부문의 지표 15개가 제시되어 있다. 즉, 안전한 삶 부문의 지표로는 보고된 범죄 발생 총 건수, 주요 범죄 검거 비율, 도난사고 발생 경험, 교통사고 발생건수, 농기계사고 경험, 전화폭력 경험, 가정폭력 경험, 화재 발생 건수, 자연재해 경험,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 농산물 가격 변화에 대한 불안감, 공공질서 수준, 도로 및 교량의 안전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 지역사회의 안전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선정되었다.

안전한 삶 부문의 대표지표로는 보고된 범죄 발생 총 건수, 전화폭력 경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 지역사회 안전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선정되었다.

조사 단위는 지역 단위가 5개 지표, 가구 단위가 3개 지표, 개인 단위가 7개 지표로 나타났다.

표 7-4. 안전한 삶 부문 지표

지표	조사 단위	지표의 산출 방식
보고된 범죄 발생 총 건수	지역	범죄의 총 발생건수
주요 범죄 검거 비율	지역	주요범죄(강력범,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발생에 대한 검거 비율
도난사고 발생 경험	가구	지난 1년 동안 도난사고를 경험한 횟수
교통사고 발생건수	지역	교통사고 발생 총 건수
농기계사고 경험	가구	지난 1년 동안 농기계사고를 당한 가구원이 있는지 여부
전화폭력 경험	개인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으로부터 장난, 공갈, 협박 전화 나 음란성 전화를 받아본 경험 여부
가정폭력 경험	개인	가족 간의 폭력행사 경험(피해자 및 가해자 입장 구분)
화재 발생 건수	지역	화재 발생 총 건수
자연재해 경험	가구	지난 1년 동안 자연재해로 인한 가구당 피해 금액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	개인	자연재해(태풍, 홍수, 가뭄, 동·상해 등)에 대한 두려움 정도(5점 척도)
농산물 가격 변화에 대한 불안감	개인	자신의 주요 경작 작목의 가격 변화에 대한 불안감 정도 (5점 척도)
공공질서 수준	개인	지역사회의 차례 지키기, 보행질서, 교통운전 질서 수준 에 대한 주관적 평가(5점 척도)
도로 및 교량의 안전도	개인	지역사회의 도로 및 교량의 안전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 가(5점 척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	개인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5점 척도)
지역사회의 안전 수준에 대한 만족도	개인	지역사회의 전반적 안전수준에 대한 만족정도 (5점 척도)
대표지표		보고된 범죄 발생 총 건수
		전화폭력 경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
		지역사회의 안전 수준에 대한 만족도

3.4. 편리한 삶 부문 지표

<표 7-5>에는 편리한 삶 부문의 지표 11개가 제시되어 있다. 즉, 편리한 삶 부문의 지표로는 주택에 대한 만족도, 노후주택 비율, 수세식 화장실 구비 여부, 행정 서비스 만족도, 월 평균 정보·통신비, 컴퓨터 보유 여부, 컴퓨터 사용시간, 정보통신교육 경험, 자동차 소유 여부, 도로 포장률,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만족도가 선정되었다.

편리한 삶 부문의 대표지표로는 컴퓨터 사용시간, 자동차 소유 여부, 주택에 대한 만족도,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선정되었다.

조사 단위는 지역 단위가 2개 지표, 가구 단위가 4개 지표, 개인 단위가 5개 지표로 나타났다.

표 7-5. 편리한 삶 부문 지표

지표	조사 단위	지표의 산출식
주택에 대한 만족도	개인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만족 정도(5점 척도)
노후주택 비율	지역	(신축 후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수/전체 주택수)×100
수세식 화장실 구비 여부	가구	수세식 화장실 구비 여부
행정 서비스 만족도	개인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시·군)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 정도(5점 척도)
월 평균 정보·통신비	가구	가구별 월 평균 정보·통신비(전화, 인터넷, 이동통신 등의 요금 합계)
컴퓨터 보유 여부	가구	컴퓨터의 보유 여부
컴퓨터 사용시간	개인	평소 1주일간 컴퓨터 사용시간
정보통신교육 경험	개인	정보통신교육 수혜 여부
자동차 소유 여부	가구	승용차, 트럭 등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도로 포장률	지역	(포장된 도로의 총 연장/총 도로연장)×100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만족도	개인	시내버스, 택시 등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주관적 인 만족 정도
대표지표		컴퓨터 사용시간
		자동차 소유 여부
		주택에 대한 만족도
		행정서비스 만족도

3.5 쾌적한 삶 부문 지표

<표 7-6>에는 쾌적한 삶 부문의 지표 14개가 제시되어 있다. 즉, 쾌적한 삶 부문의 지표로는 생활하수 배출량, 하수도 보급률, 상수도 보급률, 수질 오염도, 주관적 식수 오염도, 주관적 소음·진동 오염도, 주관적 악취 오염도, 쓰레기 수거율, 1회 용품의 사용 정도, 음식쓰레기 처리 방법, 재활용품 처리 방법, 하수·오수 처리 방법, 친환경 상품(녹색제품) 구매 경험 및 선호도, 지역사회생활의 쾌적성이 선정되었다.

쾌적한 삶 부문의 대표지표로는 상수도 보급률, 수질오염도, 하수·오수 처리 방법, 지역사회생활의 쾌적성에 대한 만족도가 선정되었다.

조사 단위는 지역 단위가 5개 지표, 가구 단위가 4개 지표, 개인 단위가 5개 지표로 나타났다.

표 7-6. 쾌적한 삶 부문 지표

지표	조사 단위	지표의 산출 방식
생활하수 배출량	지역	1일 생활하수 배출량/인구수
하수도 보급률	지역	(하수도 공급인구/총 인구)×100
상수도 보급률	지역	(상수도 공급인구/총 인구)×100
수질 오염도	지역	BOD 1~10
주관적 식수 오염도	개인	지역사회의 식수 오염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5점 척도)
주관적 소음·진동 오염도	개인	지역사회의 소음·진동 정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5점 척도)
주관적 악취 오염도	개인	지역사회의 악취 정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5점 척도)
쓰레기 수거율	지역	(쓰레기 수거 량/쓰레기 배출량)×100
1회 용품의 사용 정도	가구	일상생활에서 1회 용품을 사용하는 정도(5점 척도)
음식쓰레기 처리 방법	가구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
재활용품 처리 방법	가구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의 처리 방법
하수·오수 처리 방법	가구	가정에서 배출되는 하수와 오수를 처리하는 방법
친환경 상품(녹색 제품) 구매 경험 및 선호도	개인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상품을 어느 정도 구매하고 선호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
지역사회생활의 쾌적성에 대한 만족도	개인	지역사회생활의 쾌적한 정도에 대한 만족 정도(5점 척도)
대표지표		상수도 보급률
		수질 오염도
		하수·오수 처리 방법
		지역사회생활의 쾌적성에 대한 만족도

3.6. 안정된 삶 부문 지표

<표 7-7>에는 안정된 삶 부문의 지표 11개가 제시되어 있다. 즉, 안정된 삶 부문의 지표로는 월 평균 휴무일, 연금 가입,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비율, 노후준비 정도, 지역사회 복지 수준에 대한 만족도, 학력, 4년제 대학 진학률, 자기계발을 위한 사회교육 경험, 월 평균 교육비, 도시 유학생 여부,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선정되었다.

안정된 삶 부문의 대표지표로는 노후준비 정도, 학력,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선정되었다.

조사 단위는 지역 단위가 2개 지표, 가구 단위가 3개 지표, 개인 단위가 6개 지표로 나타났다.

표 7-7. 안정된 삶 부문 지표

지표	조사 단위	지표의 산출식
월 평균 휴무일	개인	월 평균 휴무일 수
연금 가입	가구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등) 또는 민간(개인)연금 가입 여부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비율	지역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수/총 인구수)×100
노후준비 정도	개인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 정도(5점 척도)
지역사회 복지 수준에 대한 만족도	개인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에 대한 만족 정도(5점 척도)
학력	개인	정규학교 이수 정도(무학~대학원 졸업) - 무학은 한글 해독 가능 여부 파악
4년제 대학 진학률	지역	(4년제 대학 진학자 수/총 고등학교 졸업자 수)×100
자기계발을 위한 사회교육 경험	개인	지난 1년 동안 어학, 컴퓨터, 취미 등과 같은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을 받은 총 시간
월 평균 교육비	가구	가구별 연간 총 교육비/12 - 사교육비 구분
도시 유학생 여부	가구	도시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가구원의 존재 여부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개인	지역사회의 교육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 정도
대표지표		노후준비 정도
		학력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3.7. 즐기는 삶 부문 지표

<표 7-8>에는 즐기는 삶 부문의 지표 13개가 제시되어 있다. 즉, 즐기는 삶 부문의 지표로는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 공연장·전시장 관람, 전통 민속문화의 계승, 연간 독서량, 신문구독, 여행 경험,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외국 대중문화 유입에 대한 태도, 이웃관계, 친구관계, 종교활동, 선거투표 참여 정도가 선정되었다.

즐기는 삶 부문의 대표지표로는 공연장·전시장 관람, 신문구독,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사회단체 참여가 선정되었다.

조사 단위는 지역 단위가 1개 지표, 개인 단위가 11개 지표로 나타났다.

표 7-8. 즐기는 삶 부문 지표

지표	조사 단위	지표의 산출 방식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	지역	문화예술 관련 시설의 공간 수
공연장·전시장 관람	개인	지난 1년 동안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관람한 횟수
전통 민속문화의 계승	개인	지역사회에서 전통 민속문화가 어느 정도 계승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연간 독서량	개인	지난 1년 동안의 총 독서 량(권)
신문구독	개인	신문구독 여부(일간지와 농업 관련 전문지 구분)
여행 경험	개인	지난 1년 동안 여행 총 횟수(국내·외 구분)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개인	지역의 문화 및 여가 시설에 대한 만족 정도(5점 척도)
외국 대중문화 유입 에 대한 태도	개인	외국 대중문화 유입의 영향에 대한 평가(5점 척도)
이웃관계	개인	이웃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나타냄
친구관계	개인	흥취물이 없이 지내는 친구의 존재 정도
종교활동	개인	종교활동의 종류 및 참여 정도
선거투표 참여 정도	개인	대통령, 국회의원, 군수(시장) 등을 선출하는 선거투표에 참여하는 정도 (5점 척도)
사회단체 참여	개인	현재 참여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사교, 스포츠·레저, 사회봉사, 학술, 정치 단체 등)의 총 수
대표지표		공연장·전시장 관람
		신문구독
		사회단체 참여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4. 용어 해설 및 산식

4.1 경제적 삶 부문 지표

- 가구소득
 - * 가구소득이란 가구의 연간 소득을 말한다.
 - * 산식: $\text{가구소득} = \text{농업소득} + \text{농외소득} + \text{이전소득}$

- 현재의 경제사정에 대한 평가 (5년 전과 비교)
 - * 5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가구별 경제사정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많이 나빠졌다’, ‘나빠졌다’, ‘전과 비슷하다’, ‘나아졌다’, ‘많이 나아졌다’의 5등급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 장래 가구소득에 대한 기대
 - * 장래 가구소득에 대한 기대는 장래 경제적 기대감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많이 나빠질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전과 비슷할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많이 나아질 것이다’의 5등급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 * 산식 : 각 응답범주에 대한 응답 비율

- 소득 만족도
 - * 가구소득에 대한 주관적 만족 정도를 말한다.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의 5등급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 * 산식 : 각 응답범주에 대한 응답 비율

- 가구당 월 평균 소비지출
 - * 가구당 월 평균 소비지출비는 월 민간소비지출을 총 가구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 * 산식 : 월 민간소비지출의 총액/총 가구수

- 소비생활 만족도
 - * 소비생활 수준에 대한 주관적 만족정도를 말한다. ‘매우 만족함’, ‘만족하는 편임’, ‘그저 그렇다’, ‘불만족한 편임’, ‘매우 불만족함’의 5개의 응답범주로 이루어져 있다.
 - * 산식: 각 응답 범주에 대한 응답 비율

- 저축 규모
 - * 가구당 예금, 적금 등의 저축 총액을 말한다.
 - * 산식: 총 저축액/총 가구수

- 부동산 규모
 - * 부동산 규모는 가구별 부동산 규모를 의미한다.
 - * 산식: 주택, 대지, 전답, 과수원, 임야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 부채 규모
 - * 부채규모는 총 부채액을 말한다.
 - * 산식: 용도(생산성, 소비성) 및 차입처(공채, 사채)별로 조사

- 직업만족도
 - * 직업만족도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주관적 만족 정도를 말한다.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의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 평균근로시간
 - * 평균 근로시간은 1일 평균 근로시간을 말한다. 여기에는 농업, 가사, 비농업 부문 근로시간을 모두 포함하고, 농번기와 농한기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 * 산식: (농업근로시간+가사노동시간+비농업 부문 근로시간)/365
- 가사분담정도
 - * 가사분담정도는 일상적인 가정생활에서 여성농업인이 가족과의 가사 분담 상태를 말한다.

4.2 건강한 삶 부문 지표

- 건강검진
 - * 최근 2년 동안 건강 검진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다.
- 진료일수
 - * 지난 1년 동안 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총 일수를 방문과 입원을 구분하여 조사한다.
- 주관적 건강 평가
 - * 자신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 건강 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5개의 응답범주로 나누어 조사한다.
- 농부증
 - * 농부증 정도를 판단하는 8개 항목(어깨 결림, 요통, 손발 저림, 야간 빈뇨, 호흡 곤란, 불면증, 어지러움, 복부 팽만감)에 대하여 ‘자

주', '가끔', '없음'의 3개 범주로 나누어 조사한다.

- 와병일수
 - * 유병자가 조사대상기간(2주일)중 질병으로 만나질 이상 누워있던 날을 말하며, 결근, 결석, 입원일을 포함한다.
-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 *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보건소, 민간 병·의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도보,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 의료인력 1인당 인구수
 - * 산식: 총인구/의료인력 수
- 보건의료기관수
 - * 조사대상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보건의료기관의 수(공공 및 민간 보건의료기관 모두 포함)를 조사한다.
- 병상 당 인구수
 - * 산식: 총 인구수/총 병상수
-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 *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각종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 정도로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매우 불만'의 5개의 범주로 나누어 조사한다.
- 흡연
 - * 흡연 여부와 빈도에 대해 조사한다.

- 음주
 - * 음주 여부와 빈도에 대해 조사한다.

4.3 안전한 삶 부문 지표

- 보고된 범죄 발생 총 건수
 - * 형법범 및 특별범 범죄의 총 발생건수
- 주요 범죄 검거 비율
 - * 주요 범죄 검거 비율은 조사된 주요 범죄 발생건수 중에서 범죄 검거건수의 비율을 말한다.
 - * 산식: $(\text{범죄 검거건수} / \text{조사된 주요 범죄 발생건수}) \times 100$
- 도난 사고 발생 경험
 - * 지난 1년 동안 도난을 당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 * 산식: 도난품 종류와 횟수
- 교통사고 발생건수
 - * 조사지역의 교통사고 발생 총 건수에 대해 조사한다.
- 농기계 사고 경험
 - * 지난 1년 동안 농기계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지 유무를 조사한다.
- 전화폭력 경험
 - *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으로부터 장난, 공갈, 협박 전화나 음란성 전화를 받아 본 경험 여부를 의미한다.

- * 산식: 전화폭력 빈도
- 가정폭력 경험
 - * 가정불화시 가족간의 폭력 사용 경험 정도를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피해자 및 가해자 입장을 구분하여 조사한다.
- 화재 발생 건수
 - * 조사지역의 화재 발생 총 건수를 의미한다.
- 자연재해 경험
 -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총 액수를 의미한다.
-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
 - * 자연재해(태풍, 홍수, 가뭄, 동·상해 등)에 대한 두려움 정도를 ‘매우 두렵다’, ‘두렵다’, ‘그저 그렇다’, ‘별로 두렵지 않다’, ‘전혀 두렵지 않다’의 5점 척도로 나누어 조사한다.
- 농산물 가격 변화에 대한 불안감
 - * 자신의 주요 경작 작목의 가격 변화에 대한 불안감 정도를 ‘매우 불안하다’, ‘불안하다’, ‘그저 그렇다’, ‘별로 불안하지 않다’, ‘전혀 불안하지 않다’의 5점 척도로 나누어 조사한다.
- 공중질서 수준
 - * 지역사회에서 공중질서(차레 지키기, 보행질서, 교통운전질서 등)가 어느 정도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5개 범주로 나누어 조사한다.

- 도로 및 교량의 안전도
 - * 지역사회의 도로 및 교량의 안전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매우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저 그렇다’, ‘별로 안전하지 못하다’, ‘매우 안전하지 못하다’의 5개의 범주로 나누어 조사한다.

-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
 - *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는 범죄피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두려움을 느끼는지에 대한 것으로서 ‘느낀다’, ‘보통이다’, ‘못 느낀다’의 3개 범주로 나누어 조사한다.

- 지역사회 안전수준에 대한 만족도
 - *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안전수준에 대한 만족 정도(5점 척도)

4.4 편리한 삶 부문 지표

- 주택에 대한 만족도
 - *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만족 정도를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매우 불만’의 5개의 범주로 나누어 조사한다.

- 노후주택 비율
 - * 산식: (신축 후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수/전체 주택수)×100

- 수세식 화장실 구비 여부
 - *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화장실이 수세식인지 여부를 조사한다.

- 행정서비스 만족도
 - * 면사무소 또는 시·군청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 정도를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매우 불만’의 5개의 범주로 나누어 조사한다.

- 월 평균 정보·통신비
 - * 가구별 월 평균 정보·통신비(전화, 인터넷, 이동통신 등의 요금 합계)를 말한다.

- 컴퓨터 보유 여부
 - * 컴퓨터의 보유 여부와 함께 초고속통신망 가입 여부도 점검한다.

- 컴퓨터 사용시간
 - * 평소 1주일간 컴퓨터 사용시간을 조사한다.

- 정보통신교육 경험
 - * 정보통신교육 수혜 여부를 조사한다.

- 자동차 소유 여부
 - * 승용차, 트럭 등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 도로 포장률
 - * 산식: (포장된 도로의 총 연장/총 도로연장)×100

-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
 - * 시내버스, 택시 등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를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매우 불만’

의 5개의 범주로 나누어 조사한다.

4.5 쾌적한 삶 부문 지표

- 생활하수 배출량
 - * 산식: 1일 생활하수 배출량/인구수
- 하수도 보급률
 - * 산식: (하수도 공급인구/총인구)×100
- 상수도 보급률
 - * 산식: (상수도 공급인구/총인구)×100
- 수질오염도
 -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의 환경 기준은 이용목적에 따라 1~10 이하 유지 달성을 목표로 한다.
- 주관적 식수 오염도
 - *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식수 오염 정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심각함’, ‘심각한 편’, ‘보통’, ‘별로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의 5개 범주로 나누어 조사한다.
- 주관적 소음·진동 오염도
 - *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소음·진동 정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심각함’, ‘심각한 편’, ‘보통’, ‘별로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의 5개 범주로 나누어 조사한다.

- 주관적 악취 오염도
 - *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악취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심각함’, ‘심각한 편’, ‘보통’, ‘별로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의 5개 범주로 나누어 조사한다.

- 쓰레기 수거율
 - * 산식: $(\text{쓰레기 수거량} / \text{쓰레기 배출량}) \times 100$

- 1회 용품의 사용 정도
 - * 일상생활에서 1회 용품을 사용하는 정도를 5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 음식쓰레기 처리 방법
 - *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조사한다.

- 재활용품 처리 방법
 - *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의 처리 방법에 대해 조사한다.

- 하수·오수 처리 방법
 - * 가정에서 배출되는 하수와 오수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조사한다.

- 친환경 상품(녹색제품) 구매 경험 및 선호도
 - *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상품을 어느 정도 구매하고 선호하고 있

는지에 대해 ‘사용하고 있다’, ‘사용하지는 않지만 관심이 있다’, ‘관심이 없다’의 3개 범주로 조사한다.

- 지역사회생활의 쾌적성에 대한 만족도
 - * 지역사회생활의 쾌적한 정도에 대한 만족 정도(5점 척도)를 조사한다.

4.6 안정된 삶 부문 지표

- 월 평균 휴무일
 - * 한 달 동안 일하지 않은 날 수를 조사한다.
- 연금 가입
 -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또는 민간(개인)연금의 가입 여부를 조사한다. 또한 여성농업인 명의의 당연 및 임의 가입 여부를 파악한다.
-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비율
 - * 산식: $(\text{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수} / \text{총 인구수}) \times 100$
- 노후준비 정도
 - *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 정도에 대해 ‘잘 준비했다’, ‘준비했다’, ‘그저 그렇다’, ‘거의 준비하지 못했다’,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의 5개 범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 지역사회 복지 만족도
 - *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에 대한 주관적 만족 정도를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매우 불만’의 5개의 범주로 나누어 조사한다.

- 학력
 - * 정규학교 이수 정도를 의미한다.
 - * 산식: 무학, 초등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졸업까지로 나누어 조사하고, 무학은 한글 해독 가능 여부를 파악

- 4년제 대학 진학률
 - * 산식: $(4년제\ 대학\ 진학자수 / 총\ 고등학교\ 졸업자수) \times 100$

- 자기계발을 위한 사회교육 경험
 - * 지난 1년 동안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을 받은 총 시간을 말한다.
 - * 산식: 지난 1년 동안 자기계발(어학, 컴퓨터, 취미 등)을 위한 교육을 받은 총 시간

- 월 평균 교육비
 - * 월 평균 교육비를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구분하여 조사한다.
 - * 산식: 가구별 연간 총 교육비/12

- 도시 유학생 여부
 - * 도시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가구의 존재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 지역사회의 교육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 정도를 ‘매우 만족’,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매우 불만’의 5개 범주로 조사한다.

4.7 즐기는 삶 부문 지표

- 문화예술시설 공간수
 - * 문화예술시설 공간수는 문화예술 관련 시설공간의 수를 말한다. 시설 공간은 공연시설, 전시시설, 지역문화 복지시설, 문화보급 전수시설로 구분한다.
-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 * 지난 1년 동안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횟수를 조사한다.
- 전통 민속문화의 계승
 - * 지역사회에서 전통 민속문화가 어느 정도 계승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 연간 독서량
 - * 지난 1년 동안의 총 독서량(권)에 대해 조사한다.
- 신문구독
 - * 신문 구독 여부를 일간지와 농업 관련 전문지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 여행 경험
 - * 지난 1년 동안의 여행 총 횟수를 국내외로 나누어 조사한다.

-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 *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 및 여가 시설에 대한 만족 정도를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매우 불만’의 5개의 범주로 나누어 조사한다.

- 외국 대중문화 유입에 대한 태도
 - * 외국 대중문화 유입의 영향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매우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그저 그렇다’, ‘부정적이다’, ‘매우 부정적이다’의 5점 척도로 조사한다.

- 이웃관계
 - * 이웃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는지 조사한다.

- 친구관계
 - * 흥허물 없이 지내는 친구의 존재 여부를 조사한다.

- 종교 활동
 - * 종교활동을 하는 정도를 ‘적극 참여’, ‘참여’, ‘보통’, ‘거의 참여 안함’, ‘전혀 참여 안함’의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참여하는 종교활동의 종류를 조사한다.

- 선거투표 참여 정도
 - * 대통령, 국회의원, 군수(시장) 등을 선출하는 선거투표 참여에 대한 태도를 ‘적극 참여’, ‘참여’, ‘보통’, ‘거의 참여 안함’, ‘전혀 참

여 안함'의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 사회단체 참여
- * 현재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사교, 종교, 스포츠·레저, 사회봉사, 학술, 이익정치 단체)의 총 수를 조사한다.

제 8 장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 관련 조사체계의 확립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 관련 조사체계는 전국 단위의 기존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 농촌주민의 삶의 질 실태에 관한 간이조사, 농촌주민의 삶의 질 실태에 관한 총 조사, 도 및 시·군 단위 통계 생산체계의 개선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 관련 조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이 4가지 방안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1. 전국 단위의 기존 통계자료의 활용

전국 단위의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우선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와 농촌생활연구소의 『농촌생활지표』생산시에 기존의 모든 지표들에 대하여 가급적 동부와 읍·면부간의 비교분석을 추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는 가능한 한 모든 지표들에 대하여

동부/읍·면부간의 비교분석을 추가해야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전체 12개 부문 중에서 매년 3개 부문씩 4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 사회통계조사를 좀 더 짧은 주기로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왜냐하면, 최근 국내외적으로 사회·경제·정치·문화적 여건이 급변하고 있어서 3~4년전에 생산된 통계자료는 그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의 『농촌생활지표』의 경우는 기존의 지표들에 대해서는 동부/읍·면부간의 비교분석을 강화하고, 농촌생활지표 체계는 부문들간에 지표수에 있어서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조정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2000년부터 전국 88개 시·군의 187개 행정리에 사는 1,870명의 농촌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촌생활지표조사』가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농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 중에서 대표적인 핵심지표를 추출하여 도·농(동부/읍·면부)간의 비교 통계치를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해야 하겠다.

전국 단위의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의 장점으로는 시간과 경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경제적이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방안의 단점으로는 관련 통계자료집에서 가능한 한 모든 지표에 대하여 도·농간 비교분석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기존 통계자료집에서 추가 범주화, 재분석 등을 통해서 활용할 수 없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들은 별도로 추가 조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간이조사 방안

농촌주민 삶의 질 실태에 관한 간이조사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최종안) 중의 대표(핵심)지표를 중심으로 매년 간이조사를 하는 방안이다. 조사방법은 공신력 있는 전문연구기관과 전문여론조사기관을 연계하되 직접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표본선정은 과학적인 무작위표출방식을 채택하고, 조사 대상자수는 1,000명(도시민과 비교시에는 총 2,000명) 정도로 한다. 사회조사비 및 연구분석비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요예산은 매년 5,000만원(도시민과 비교시에는 1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 방안의 장점은 대표지표를 중심으로 매년 농촌주민의 삶의 질 실태를 조사하여 시의성 있게 정책적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방안은 조사 내용이 많지 않아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간이조사이기 때문에 농촌주민의 삶의 질 실태를 좀 더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3. 총 조사 방안

농촌주민의 삶의 질 실태에 관한 총 조사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최종안)를 기반으로 조사표를 구성하여 매 5년마다 실시한다. 조사방법으로는 공신력 있는 전문연구기관, 통계청, 전문여론조사기관을 연계하되 직접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표본선정은 과학적인 무작위표출방식을 채택하며, 조사 대상자수는 종합적인 총

조사임을 감안하여 1,500명(도시민과 비교시에는 총 3,000명) 정도로 한다. 사회조사비, 통계분석비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요예산은 매 5년마다 7,500만원(도시민과 비교시에는 1억 5,0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 방안은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 전체를 종합적으로 조사함으로써 다양한 지표를 한꺼번에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시간과 경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4. 도 및 시·군 단위 통계 생산체계의 개선

도 및 시·군 단위 통계 생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도별 사회지표의 생산을 장려하고, 지표 생산 시에 도·농간 비교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하겠다. 둘째, 도 및 시·군 단위 통계자료 생산 시에 중앙 단위의 ‘삶의 질’ 관련 통계자료와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도 및 시·군 단위 통계자료 중에서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불필요한 지표들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 또는 『한국의 사회지표』체계 중심으로 조사체계를 개편하도록 유도해야 하겠다. 이 방안의 장점은 지표의 측정 단위별 연계를 강화할 수 있고, 지역의 통계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방안의 단점으로는 도 및 시·군의 통계연보 조사 항목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하고 관련 통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계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제 9 장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의 삶의 질 관련 지표의 개발은 1970년대 중반에 시작되어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삶의 질 관련 지표들이 주로 전국 단위 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도시 위주로 설정되어 왔기 때문에 농촌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 관련 자료로는 『한국의 사회지표』, 『농촌생활지표』 등이 있으나 각각 ‘삶의 질’의 일부분만을 다루고 있다. 더구나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 관련 통계자료나 선행연구들은 여전히 양적 지표 중심일 뿐만 아니라 농촌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농촌주민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촌주민의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관련 지표들에 비해서 농촌주민들의 삶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삶의 질 지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 가구 및 개인 단위를 중심으로 농촌주

민의 삶의 질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마련하고, ② 앞으로 농촌주민의 삶의 질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다.

이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방법은 기존자료 조사, 현지 예비조사, 델파이조사 방법을 통한 전문가 의견조사,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의 문제점 파악을 위한 현지 주민조사 등이다.

기존자료 조사는 농림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련 기관 및 기타 국내·외의 문헌 및 통계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현지 예비조사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 제1차 시안의 문제점 파악을 위해서 진천군 및 예산군에서 10명의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례지역(양평, 광주, 진천, 예산, 정선, 보은)의 삶의 질 지표 관련 통계자료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조사 방법을 통한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는 관련 학회, 농업인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공무원 등에서 조사 대상자 100명을 선정하였다. 조사방법은 전자우편(E-mail) 조사를 위주로 하되 일반 우편조사, 전화면접 등을 보조 조사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조사내용은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제1차 및 제2차 시안)에 대하여 지표개발의 기본방향, 지표 부문, 관심영역, 각 지표의 적절성, 대표지표 등에 관한 것이었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 시안의 문제점 파악을 위한 현지 주민조사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 60명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내용은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 2차 시안을 바탕으로 가구 및 개인 단위의 현지조사가 필요한 지표를 구분하여 조사문항을 구성하였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 작성은 다음과 같은 3단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첫째, 선행연구 검토, 예비조사 등을 통해서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 체계 제1차 시안(6개 부문 총 102개 지표)을 마련하였다. 둘째,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 제1차 시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 제2차 시안(6개 부문 총 105개 지표)을 마련하였다. 셋째, 제2차 시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현지 예비조사 및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 제2차 시안의 문제점 파악을 위한 현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 최종시안(7개 부문 총 87개 지표)을 마련하였다.

이 연구에 있어서 ‘삶의 질’이란 개념은 “살아가는 일이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삶의 질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관점들로는 쾌락이론, 욕구이론, 객관적 목록이론, 일차적 재화이론, 실체적 유익이론, 수용능력접근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의 이론적 관점은 수용능력접근을 기본으로 한다. 수용능력접근법은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포괄하고 특히 삶의 질의 객관적 측면뿐만 아니라 주관적 측면도 잘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의 삶의 질 지표 설정은 연역적 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귀납적 방법과 시민·참여적 방법을 보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 관련 전국 단위 통계자료들의 문제점으로는 ① 생활의 질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 ② 삶의 질 관련 지표들이 각종 자료집에 분산되어 있어서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일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③ 삶의 주관적 측면은 주로 사회조사(주로 면접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한번에 조사하지 못하고 몇 년 동안 나누어서 조사하고 있어서 조사내용이 시의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많음 등을 들 수 있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 관련 도 단위 통계로는 도별 통계연보,

도별 백서, 도별 사회지표(예를 들면, 경남의 사회지표, 경기사회지표) 등이 있다. 도별 통계연보는 도내의 시 및 군들 간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도시/농촌(동부/읍·면부)간 비교 지표는 거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도별 백서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 거의 없다. 도별 사회지표의 경우에는 아직도 도별 사회지표를 생산하지 않는 도가 상당수 있고, 도별로 다루고 있는 지표들의 범위가 다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별 사회지표들은 부문별로 지표를 균형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요한 지표들이 누락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조사를 대규모(1만 가구 정도)로 하여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몇 년 동안(주로 3년) 나누어서 실시하여 효율성과 통계치 생산의 시의 적절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 관련 시·군 단위 통계의 문제점으로는 ① 불필요한 지표가 많은 반면에 정말로 중요한 지표(예를 들면, 소득 관련 자료)는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② 지표 분야를 균형적으로 다루지 못하며, ③ 주관적 또는 질적 지표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 들어 선진국들은 경제성장이 그대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생활 수준의 질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국제기관도 각국의 삶의 질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삶의 질에 관한 각종 지표체계를 개발·제시하였다. 건강, 교육, 취업, 주거, 여가, 소득 등은 공통적인 것들로서 삶의 질을 파악하는 기본적인 관심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에 대한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는 총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 개발의 기본방향, 지표 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각 지표의 적합성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제1차 전문가 의견조사는 총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도 하였으나 그 중에서 35명만이 응답을 하였다(응답 회수율 35%). 제1차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6개 부문에서 총 102개 지표 각각의 적합성 정도를 자세하게 파악하였다.

제2차 전문가 조사는 제1차 전문가 조사에서 응답한 사람 35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에서 20명이 응답을 하였다(응답 회수율 57.1%). 제2차 전문가 조사에서는 6개 부문 총 105개 지표에 대한 추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부문별로 대표지표를 4~5개씩 추천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 시안의 문제점 파악을 위한 현지 주민조사는 6개 지역(경기도 양평 및 광주, 충북 진천, 충남 예산, 강원도 정선, 충북 보은)의 농촌주민 60명을 대상으로 80개 문항(가구 및 개인 대상 지표를 중심으로)에 대하여 연구자들이 심층 면접조사를 하였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의 기본방향으로는 ① 농촌주민의 삶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고, ② 도시·농촌간 또는 지역별 비교를 감안하며, ③ 농촌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 ④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적절하게 병용하고, ⑤ 일반 국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조사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 등을 고려하였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최종안)는 7개 부문(경제적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편리한 삶, 쾌적한 삶, 안정된 삶, 즐기는 삶)의 총 8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지표는 부문별로 3~4개씩 총 26개 지표가 선정되었다. 대표지표 선정은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 현지 주민조사, 연구과제 세미나의 토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농촌주민의 특성이 살아나는 것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는 7개 부문(경제적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편리한 삶, 쾌적한 삶, 안정된 삶, 즐기는 삶)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적 삶 부문은 소득·소비, 노동 분야를 포괄하며, 관심영역으로는 소득수준, 소비수준, 경제활동의 안정을 들 수 있다. 건강한 삶 부문의 관심영역은 보건의료 인력 및 시설, 건강 상태 및 관리, 보건의료서비스이다. 안전한 삶 부문의 관심영역은 범죄로부터의 안전, 범죄 이외의 사고로부터의 안전, 안전에 대한 의식 등을 들 수 있다. 편리한 삶 부문은 주거, 정보화, 교통 분야를 포괄하며, 관심영역으로는 주거상태, 주거의 질, 정보화 정도, 정보화에 대한 인식, 교통시설, 교통의 질을 들 수 있다. 쾌적한 삶 부문의 관심영역은 환경압력, 환경의 질, 환경관리를 들 수 있다. 안정된 삶 부문은 교육, 복지 분야를 포괄하며, 관심영역으로는 교육기회, 교육자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복지 수준이다. 즐기는 삶 부문은 문화 및 여가, 사회 분야를 포괄하며, 문화예술 활동, 여가활동, 이웃·친구 관계, 사회 참여를 들 수 있다.

경제적 삶 부문의 지표(12개)로는 가구소득, 현재의 경제사정에 대한 평가, 장래의 경제사정에 대한 전망, 소득 만족도, 가구당 월 평균 소비지출, 소비생활 만족도, 저축규모, 부동산규모, 부채규모, 직업만족도, 평균 근로시간, 가사분담이 선정되었다. 경제적 삶 부문의 대표지표로는 가구소득, 소득 만족도, 직업 만족도, 평균 근로시간이 선정되었다.

건강한 삶 부문의 지표(12개)로는 건강검진, 진료일수, 주관적 건강 평가, 농부증, 외병일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의료인력 1인당 인구수, 보건의료기관수, 병상당 인구수,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흡연, 음주가 선정되었다. 건강한 삶 부문의 대표지표로는 주관적 건강 평가, 외병일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가 선정되었다.

안전한 삶 부문의 지표(15개)로는 보고된 범죄 발생 총 건수, 주요

범죄 검거 비율, 도난사고 발생 경험, 교통사고 발생건수, 농기계사고 경험, 전화폭력 경험, 가정폭력 경험, 화재 발생 건수, 자연재해 경험,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 농산물 가격 변화에 대한 불안감, 공공질서 수준, 도로 및 교량의 안전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 지역사회 안전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선정되었다. 안전한 삶 부분의 대표지표로는 보고된 범죄 발생 총 건수, 전화폭력 경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 지역사회 안전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선정되었다.

편리한 삶 부분의 지표(11개)로는 주택에 대한 만족도, 노후주택 비율, 수세식 화장실 구비 여부, 행정 서비스 만족도, 월 평균 정보·통신비, 컴퓨터 보유 여부, 컴퓨터 사용시간, 정보통신교육 경험, 자동차 소유 여부, 도로 포장률,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만족도가 선정되었다. 편리한 삶 부분의 대표지표로는 주택에 대한 만족도, 컴퓨터 사용시간, 자동차 소유 여부가 선정되었다.

쾌적한 삶 부분의 지표(14개)로는 생활하수 배출량, 하수도 보급률, 상수도 보급률, 수질오염도, 주관적 식수 오염도, 주관적 소음·진동 오염도, 주관적 악취 오염도, 쓰레기 수거율, 1회 용품의 사용 정도, 음식쓰레기 처리 방법, 재활용품 처리 방법, 하수·오수 처리 방법, 친환경 상품(녹색제품) 구매 경험 및 선호도, 지역사회생활의 쾌적성이 선정되었다. 쾌적한 삶 부분의 대표지표로는 상수도 보급률, 수질오염도, 하수·오수 처리 방법, 지역사회생활의 쾌적성에 대한 만족도가 선정되었다.

안정된 삶 부분의 지표(11개)로는 월 평균 휴무일, 연금 가입,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비율, 노후준비 정도, 지역사회 복지 수준에 대한 만족도, 학력, 4년제 대학 진학률, 자기계발을 위한 사회교육 경험, 월 평균 교육비, 도시 유학생 여부,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선정되었다. 안정된 삶 부분의 대표지표로는 노후준비 정도, 학력,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선정되었다.

즐기는 삶 부문의 지표(13개)로는 문화예술시설 공간수, 공연장 · 전시장 관람, 전통 민속문화의 계승, 연간 독서량, 신문구독, 여행 경험, 문화 · 여가시설 만족도, 외국 대중문화 유입에 대한 태도, 이웃 관계, 친구관계, 종교활동, 선거투표 참여 정도가 선정되었다. 즐기는 삶 부문의 대표지표로는 공연장 · 전시장 관람, 신문구독, 문화 · 여가 시설 만족도, 사회단체 참여가 선정되었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 관련 조사체계는 전국 단위의 기존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 농촌주민의 삶의 질 실태에 관한 간이조사, 농촌주민의 삶의 질 실태에 관한 정기적인 총 조사, 도 및 시 · 군 단위 통계 생산체계의 개선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전국 단위의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우선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 농촌생활연구소의 『농촌생활지표』생산시에 기존의 모든 지표들에 대하여 가급적 동부와 읍 · 면부간의 비교분석을 추가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이 있다. 기존 통계자료집에서 추가 범주화 및 재분석 등을 통해서 활용할 수 없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들은 별도로 추가 조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통계청, 농촌생활연구소 등에 조사연구비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하겠다.

농촌주민 삶의 질 실태에 관한 간이조사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최종안) 중의 대표(핵심)지표를 중심으로 매년 간이조사를 하는 방안이다. 조사방법은 공신력 있는 전문연구기관과 전문여론조사기관을 연계하되 직접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표본선정은 과학적인 무작위표출방식을 채택하고, 조사 대상자수는 1,000명(도시민과 비교시에는 총 2,000명) 정도로 한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실태에 관한 총 조사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최종안)를 근거로 삼아 매 5년마다 실시한다. 조사방법으로

는 공신력 있는 전문연구기관과 전문여론조사기관을 연계하되 직접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표본선정은 과학적인 무작위표출방식을 채택하며, 조사 대상자수는 종합적인 총 조사임을 감안하여 1,500명(도시민과 비교시에는 총 3,000명) 정도로 한다.

도 및 시·군 단위 통계 생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도별 사회지표의 생산을 장려하고, 지표 생산 시 도·농간 비교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하겠다. 둘째, 도 및 시·군 단위 통계자료 생산시에 중앙 단위의 ‘삶의 질’ 관련 통계자료와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도 및 시·군 단위 통계자료 중에서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불필요한 지표들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 또는 「한국의 사회지표」체계 중심으로 조사체계를 개편하도록 유도해야 하겠다. 끝으로, 도 및 시·군의 통계연보 조사항목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하고 관련 통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최근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농가경제가 악화되고 농외 취업 기회도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의료서비스, 교육, 사회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있어서 도·농간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농촌주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개발된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가 구체적인 지표생산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통계청, 농림부, 농촌진흥청과 같은 정부 중앙 부처,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한 이들간에는 기존의 조사체계, 인력, 예산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구축이 되면 농촌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부 록 1

농촌주민의 '삶의 질'측정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표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금년도에 농촌주민의 「삶의 질」측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바, 관련 전문가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 연구사업 추진에 반영하려 하오니 선생님께서 평소 가지고 계신 생각들을 기탄 없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진해 주신 선생님의 의견들은 모두 귀중한 연구 및 정책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 설문지를 받으시는 대로 기입하시어 E-mail(pds8382@krei.re.kr) 또는 Fax(02-960-0163)를 이용하여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빠짐 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 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작성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으로 연락 주십시오.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발전연구센터
박대식(02-3299-4345), 최경환(02-3299-4348)

1. 선생님께서는 정부나 연구기관 등에서 발표하는 농업·농촌·농촌주민 관련 통계자료를 얼마나 활용하십니까? ()

- ① 늘 활용한다
- ② 자주 활용한다
- ③ 가끔 활용한다
- ④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2. 선생님께서는 정부나 연구기관 등에서 발행하고 있는 통계자료집에 농촌 주민의 삶의 질 관련 통계가 어느 정도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충분히 제시되어 있다
- ② 어느 정도 제시되어 있다
- ③ 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④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다

3. 선생님께서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에 관하여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

- ① 아주 관심이 많다
- ② 다소 관심이 있다
- ③ 별로 관심이 없다
- ④ 전혀 관심이 없다

4. 다음은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체계와 기본방향을 잠정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이중에서 「삶의 질」 지표체계 개발에 있어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것부터 우선순위에 따라서 3가지만(1~3순위) 적어주시고, 추가할 것이 있으시면 기타 부분에 그 내용과 순위를 기입해 주십시오. ()

- ① 일반 국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함
- ② 도시·농촌간 또는 지역별 비교를 감안해야 함
- ③ 농촌주민의 삶의 특수성을 잘 반영해야 함
- ④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적절하게 병용해야 함
- ⑤ 농촌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함
- ⑥ 기타()

5. 다음 페이지에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분류한 「삶의 질」 부문 및 관심영역(시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은 6개 부문(경제적인 삶, 건강한 삶, 편리한 삶, 쾌적한 삶, 안전한 삶, 사회·문화적 삶)으로 나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삶의 질」 부문 관심영역과 관련하여 선생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구 분	「삶의 질」 부문	관심영역
추가해야 할 것		
삭제해야 할 것		
수정이 필요한 것		
기타 의견		

「삶의 질」 부문 및 관심영역(시안)

「삶의 질」 부문		관심영역
경제적인 삶	소득·소비	소득수준 소비수준 경제생활의 안정
	노동	고용구조 근로조건
	복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복지수준
건강한 삶	보건의료	건강상태 보건의료 인력 보건의료 시설 보건의료 서비스
안전한 삶	안전	범죄로부터의 안전 범죄 이외의 사고로부터의 안전 안전에 대한 의식
편리한 삶	주거	주거상태 주거의 질
	정보화	정보화 정도 정보화에 대한 인식
	교통	교통시설 교통의 질
	교육	교육기회 교육자원
쾌적한 삶	환경	환경압력 환경의 질 환경관리
사회·문화적 삶	문화 및 여가	문화예술활동 여가활동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만족
	사회	인구 가족 사회참여

6. 다음은 「경제적인 삶」 분야의 삶의 질 지표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각 지표가 농촌주민의 「경제적인 삶」 측면의 생활실태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체크해주시시오.

「경제적인 삶」 분야의 삶의 질 지표

지표	조사 단위	지표의 산출 방식	잘 반영 ⑤	대체로 반영 ④	보통 ③	별로 반영 못함 ②	거의 반영 못함 ①
월 평균 가구소득	가구	가구당 연간소득/12					
현재의 경제사정에 대한 평가(5년 전과 비교)	개인	5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가구별 경제사정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관한 5점 척도					
장래의 경제사정에 대한 전망(5년 후)	개인	5년 후에 가구별 경제사정이 어떻게 변할 것으로 전망하는지에 관한 5점 척도					
소득 만족도	개인	가구소득에 대한 주관적 만족 정도					
소득 집중도	지역	소득 불평등의 척도로 지니계수, 10분 위 분배율 적용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	지역	지역내 총생산/인구수					
가구당 월 평균 소비지출	가구	가구별 연간 소비지출액/12					
가구당 월 평균 전력 소비량	가구	가구별 월 평균 가정용 전력 소비 정도					
소비생활 만족도	개인	개인의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					
저축규모	가구	가구별 예금, 적금 등의 저축 총액					
부채규모	가구	가구별 총 부채액					
소득의 원천별 구성	가구	가구별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수입의 구성 비율					
영농 종사 기간	개인	영농에 종사한 총 연수					

「경제적인 삶」 분야의 삶의 질 지표 (계속)

지표	조사 단위	지표의 산출 방식	잘 반영 ⑤	대체로 반영 ④	보통 ③	별로 반영 못함 ②	거의 반영 못함 ①
실업률	지역	(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100					
농외 경제활동 참여	개인	농업 이외의 부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지 여부					
평균근로시간	개인	1일 평균 총 근로시간(농업, 가사, 비농업 부문 포함), 농번기와 농한기 구분					
직업 만족도	개인	자신의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 정도					
월 평균 국민건강보험료	가구	월 평균 국민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료 부담에 대한 인식	개인	국민건강보험료가 가정경제에 부담되는 정도					
공적 연금 가입	가구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연금 등) 가입여부(당연 및 임의 가입)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 비율	지역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수/총 인구수)×100					
복지 수준에 대한 만족도	개인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에 대한 만족 정도					

* 「경제적인 삶」 분야의 지표 중 개선사항이나 추가항목이 있으시면 기입해 주십시오.

7. 다음은 「건강한 삶」 분야의 삶의 질 지표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각 지표가 농촌주민의 「건강한 삶」 측면의 생활실태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건강한 삶」 분야의 삶의 질 지표

지표	조사 단위	지표의 산출 방식	잘	대체로	보통	별로	거의
			반영 ⑤	반영 ④	반영 ③	반영 못함 ②	반영 못함 ①
건강관리 방법	개인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하는 구체적 건강 유지 방법					
건강검진	개인	최근 2년간 종합건강진단을 받은 경험 유무					
진료일수	개인	지난 1년간 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방문 또는 입원)를 받은 총 일수					
질병 치료의 애로사항	개인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질병을 치료할 때 경험하는 주요 애로사항					
주관적 건강 평가	개인	자신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 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					
농부증	개인	농부증 정도를 판단하는 8개 항목의 척도 사용					
와병일수	개인	지난 1년간 총 와병일수					
영아사망률	지역	(출생 1년 미만내 사망 영아수/특정년도 1년간 출생자 수)×100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개인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보건소, 민간 병·의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의료인력 1인당 인구수	지역	총인구/의료인력수					
의료기관수	지역	의료기관의 총 수					
병상당 인구수	지역	총인구/총 병상 수					
보건 의료서비스 만족도	개인	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각종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					
흡연	개인	흡연 여부 및 빈도					
음주	개인	음주 여부 및 빈도					

* 「건강한 삶」 분야의 지표 중 개선사항이나 추가항목이 있으시면 기입해 주십시오.

8. 다음은 「안전한 삶」 분야의 삶의 질 지표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각 지표가 농촌주민의 「안전한 삶」 측면의 생활실태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안전한 삶」 분야의 삶의 질 지표

지표	조사 단위	지표의 산출 방식	잘	대체로	보통	별로	거의
			반영 ⑤	반영 ④	③	반영 못함 ②	반영 못함 ①
보고된 범죄 발생 총 건수	지역	범죄의 총 발생건수					
경찰관 1인당 인구수	지역	연양인구수/경찰관수					
신고된 주요 범죄 해결 비율	지역	(신고된 주요 범죄 해결건수/조사된 주요 범죄 발생건수)×100					
교통사고 발생 건수	지역	교통사고 발생 총 건수					
전화폭력 경험 여부	개인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으로부터 장난, 공갈, 협박 전화나 음란성 전화를 받아본 경험 여부					
가정폭력 경험	개인	가정 폭력 경험 정도					
성희롱 경험	개인	성희롱 경험 정도					
화재 발생 건수	지역	화재 발생 총 건수					
풍수해 피해 정도	가구	지난 1년 동안의 풍수해로 인한 가구당 피해정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	개인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					

* 「안전한 삶」 분야의 지표 중 개선사항이나 추가항목이 있으시면 기입해 주십시오.

9. 다음은 「편리한 삶」 분야의 삶의 질 지표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각 지표가 농촌주민의 「편리한 삶」 측면의 생활실태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편리한 삶」 분야의 삶의 질 지표

지표	조사 단위	지표의 산출 방식	잘	대체로	보통	별로	거의
			반영 ⑤	반영 ④	③	반영 못함 ②	반영 못함 ①
주택소유 형태	가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 형태 (자가, 전세, 월세 등)					
주택에 대한 만족도	개인	주택 자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주택에 대한 불만 이유	개인	현 거주 주택에 불만족하는 이유					
노후주택 비율	지역	(신축 후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수/전체 주택수)×100					
온수 목욕시설	가구	온수 목욕시설 구비 여부					
수세식 화장실	가구	수세식 화장실 구비 여부					
난방방식	가구	주요 난방방식					
현 거주지 만족도	개인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현 거주지 불만 이유	개인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불만족하는 이유					
월 평균 전화 요금	가구	가구별 월 평균 전화 요금					
휴대폰 소유 여부	개인	휴대폰의 소유 여부					
컴퓨터 보유 여부	가구	컴퓨터의 보유 여부					
컴퓨터 사용시간	개인	1주일간 컴퓨터 평균사용시간					
정보 및 통신 수준에 대한 만족도	개인	정보 및 통신 수준에 대한 만족 정도					
정보화교육	개인	정보화교육 수혜 여부					
자가용 운행 여부	개인	현재 본인이 자가용을 운행하고 있는지 여부					

「편리한 삶」 분야의 삶의 질 지표 (계속)

지표	조사 단위	지표의 산출 방식	잘 반영 ⑤	대체로 반영 ④	보통 ③	별로 반영 못함 ②	거의 반영 못함 ①
도로 포장률	지역	(포장된 도로의 총연장/총도로연장) ×100					
시·군청까지 소요시간	개인	시·군청까지 평균 소요시간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만족도	개인	시내버스, 택시 등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					
통근 및 통학 교통수단	지역	시내버스, 지하철, 승용차, 자전거, 도보, 기타가 차지하는 비율					
교육연수	개인	총 교육연수(정규학교)					
4년제 대학 진학률	지역	(4년제 대학 진학자수/총 고등학교 졸업자수)×100					
자기계발을 위한 사회교육 경험	개인	지난 1년간 어학, 컴퓨터, 취미 등과 같은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을 받은 총 시간					
월 평균 교육비	가구	가구별 연간 총 교육비(사교육비 포 함)/12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개인	지역사회의 교육서비스 전반에 대 한 만족 정도					

* 「편리한 삶」 분야의 지표 중 개선사항이나 추가항목이 있으시면 기입해 주
십시오.

10. 다음은 「쾌적한 삶」 분야의 삶의 질 지표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각 지표가 농촌주민의 「쾌적한 삶」 측면의 생활실태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쾌적한 삶」 분야의 삶의 질 지표

지표	조사 단위	지표의 산출 방식	잘 반영 ⑤	대체로 반영 ④	보통 ③	별로 반영 못함 ②	거의 반영 못함 ①
생활하수 배출량	지역	1일 생활하수 배출량/인구수					
하수도 보급률	지역	(하수도 공급인구/총인구)×100					
수질오염도	지역	BOD 1~10					
주관적 환경 오염도	개인	환경오염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쓰레기 수거율	지역	(쓰레기 수거량/쓰레기 배출량)×100					
쓰레기 분리 수거 참여도	개인	쓰레기 분리수거에 얼마나 동참하고 있는지를 나타냄					
환경오염 방지 노력	개인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개인적인 수준에서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					
친환경 상품 (녹색제품) 구매 경험 및 선호도	개인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상품을 어느 정도 구매하고 선호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					
친환경 농업 실천	개인	친환경농업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					
지역사회의 주요 환경문제	개인	지역사회의 주요 환경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					

* 「쾌적한 삶」 분야의 지표 중 개선사항이나 추가항목이 있으시면 기입해 주십시오.

11. 다음은 「사회·문화적 삶」 분야의 삶의 질 복지지표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각 지표가 농촌주민의 「사회·문화적 삶」 측면의 생활실태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사회·문화적 삶」 분야의 삶의 질 지표

지표	조사 단위	지표의 산출 방식	잘 반영 ⑤	대체로 반영 ④	보통 ③	별로 반영 못함 ②	거의 반영 못함 ①
문화예술 시설 공간수	지역	실제 시설 공간수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개인	지난 1년간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횟수					
연간 독서량	개인	지난 1년간의 총 독서량					
신문구독	개인	신문 구독 여부					
여행 경험	개인	지난 1년간 국내·외 여행 총 횟수					
여가활동 방법	개인	여가활동 유형별 응답 비율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개인	문화 및 여가 시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관한 것					
가족의 형태	가구	핵가족, 직계가족, 기타 가족과 같은 가족의 형태					
노후준비 정도	개인	자신의 노후 생활에 대한 대비 정도					
노후준비 방법	가구	보험, 예금·적금, 연금, 부동산, 유가증권 등					
부모의 노후부양 책임에 대한 태도	개인	부모의 노후부양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것					
가사분담	가구	가족원들과의 가사 분담 정도					
가정생활 만족도	개인	가정생활에 대한 개인적인 만족 정도					
연령 계층 및 성비	지역	연령별 계층 및 성비					

「사회·문화적 삶」 분야의 삶의 질 지표 (계속)

지표	조사 단위	지표의 산출 방식	잘	대체로	보통	별로	거의
			반영 ⑤	반영 ④	③	반영 못함 ②	반영 못함 ①
농촌거주기간	개인	읍·면지역에 거주한 총 연수					
총 부양비	지역	생산연령층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 (유년부양비+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지역	(65세 이상 인구/14세 이하 인구)					
출생률	지역	(1년간 출생아수/가임여성인구)×100					
사회단체 참여	개인	현재 참여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계, 동 창회, 정당, 농민단체, 봉사단체 등)의 총 수					
선거투표율	지역	(투표자 수/총유권자수)×100					

* 「사회·문화적 삶」 분야의 지표 중 개선사항이나 추가항목이 있으시면
기입해 주십시오.

* 다음은 자료분 류를 위한 질문입니다.

12. 성별 :

13. 나이 : 만 세

14. 학력 ()

- ① 국민(초등)학교 졸업
- ② 중학교 졸업
- ③ 고등학교 졸업
- ④ 대학 졸업
- ⑤ 대학원 졸업

15. 전문(전공) 분야 ()

- ①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 ② 사회학 또는 농촌사회학
- ③ 경제학 또는 농업경제학
- ④ 여성학 또는 가정학
- ⑤ 교육학 또는 농업교육학
- ⑥ 기타 ()

16. 소속 및 연락처

소속 : ()

연락처 :

- 전화 ()

- E-mail ()

17. 이 밖에 선생님께서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 개발과 관련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을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부 록 2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지표의 문제점 파악을 위한 현지조사표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금년도에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바,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 연구사업 추진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 조사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한 여러 가지 지표들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좀 더 나은 지표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선생님의 의견을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 10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발전연구센터

박대식(02-3299-4345) · 최경환(02-3299-4348)

4. 현재 귀댁의 소득정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불 만족한다
- ⑤ 매우 불 만족한다

5. 귀댁의 월 평균 생활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만원

6. 귀하는 귀댁의 소비생활 수준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소득수준이나 이웃과 비교시)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불만족한다
- ⑤ 매우 불만족한다

7. 귀댁의 저축(예금, 적금 등) 총액은 얼마나 되십니까?(저축의 범위
점점)

() 만원

8. 귀댁의 부채액은 얼마나 되십니까? (부채의 주요 원인도 파악)

공채: () 만원

사채: () 만원

9. 귀하께서는 농업 이외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무엇: ()

10. 귀하의 1일 평균 노동시간(농업, 가사, 비농업부문 포함)은 얼마나 되십니까?

농한기(개월): 농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비농업부문 노동()시간

농번기(개월): 농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비농업부문 노동()시간

11. 귀하는 현재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불만족한다
- ⑤ 매우 불만족한다

12. 귀하의 월 평균 국민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됩니까?

() 만원

13. 귀하는 국민연금,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에 가입하셨습니다가? (민간연금 가입 여부도 점검)

()연금에 가입함

14. 현재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지역사회의 범위 인식, 비교 준거 등을 점검)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불만족한다
- ⑤ 매우불만족한다

※ 다음은 「건강한 삶」 분야의 삶의 질 지표입니다.

15. 귀하는 자신의 건강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종류 점검)

()

16. 귀하는 최근 2년 동안 종합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17. 귀하께서 지난 1년 동안 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방문, 입원)를 받은 것은 총 며칠이나 되십니까? (1년 동안의 진료일수를 제대로 기억하는지 점검)

총 ()일

18.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자신의 질병을 치료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19. 귀하는 자신의 연령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건강한 편입니까?

- ① 아주 건강한 편이다
- ② 건강한 편이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 ⑤ 아주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20. 귀하는 다음과 같은 농부증 증세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없었다: 0점, 가끔 있었다: 1점, 자주 있었다: 2점 부여)

- ① 어깨 결림()
- ② 요통()
- ③ 손발 저림()
- ④ 야간 빈뇨()
- ⑤ 호흡 곤란()
- ⑥ 불면증()
- ⑦ 어지러움()
- ⑧ 복부 팽만감()

21. 귀하의 지난 1년 간 총 와병일수는 몇 일입니까?
(1년이라는 기간의 적절성 판단)

총 ()일

22. 귀하께서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보건소, 민간 병·의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도보, 차량 등으로 구분, 분 또는 시간 단위)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보건소:

민간 병·의원:

※ 다음은 「안전한 삶」 분야의 삶의 질 지표입니다.

28.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으로부터 장난, 공갈, 협박 전화나 음란성 전화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29. 귀하는 가정폭력 경험(어린이 학대 포함)이 있으십니까?
(피해자 및 가해자 경험 구분 조사)

- ① 예
- ② 아니오

30. 귀하는 성희롱 경험이 있으십니까? (피해자 및 가해자 경험 구분 조사)

- ① 예
- ② 아니오

31. 귀대는 지난 1년 동안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적이 있으십니까?

피해 경험(무엇):

32. 귀하는 지역사회에서 범죄 피해에 대해 어느 정도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범죄 피해 종류 점검)

- ① 매우 크게 느낀다
- ② 크게 느낀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느끼지 않는다
- ⑤ 거의 느끼지 않는다

33. 지난 1년 동안 귀택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안전사고의 종류 및 총 건수:

※ 다음은 「편리한 삶」 분야의 삶의 질 지표입니다.

34. 귀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불만족한다(34-1번으로)
- ⑤ 매우 불만족한다(34-1번으로)

34-1. 불만족스럽다면, 그 이유는? ()

35. 귀하께서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신·개축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주택 건축 연수도 점검)

- ① 예
- ② 아니오

36.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온수 목욕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37.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수세식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재래식 화장실, 개량식 화장실 등 점검)

- ① 예
- ② 아니오

38.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주요 난방방식은?

()

39. 귀하는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불만족한다(39-1번으로)
- ⑤ 매우 불만족한다(39-1번으로)

39-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

40. 귀택의 월 평균 전화 요금은?

()만원

41. 귀하는 휴대폰을 가지고 계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42. 귀택에 컴퓨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 ① 예(42-1번으로)
- ② 아니오

42-1. 귀하께서 1주일 동안 컴퓨터를 사용 평균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시간

43. 귀하는 현재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정보 및 통신 수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불만족한다
- ⑤ 매우 불만족한다

44. 귀하는 정보화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빈도도 점검)

- ① 예
- ② 아니오

45. 귀하께서는 현재 자가용을 운행하고 있으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46. 귀댁에서는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으십니까?
47. 귀하가 살고 있는 마을(자연부락)의 가로등수는 몇 개입니까?
48. 귀하는 이웃과의 관계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변이성이 있는지 점검)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불 만족한다
 - ⑤ 매우 불 만족한다
49. 귀하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구의 행정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군, 읍·면 단위 구분 점검)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불만족한다
 - ⑤ 매우 불만족한다
50. 귀하께서는 시장이나 대형 소매점에 가는 것이 어느 정도 편리
합니까?
51. 귀하가 시·군청까지 가는데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 ()분

52. 귀하는 지역사회에서 시내버스, 택시 등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불 만족한다
- ⑤ 매우 불 만족한다

53. 귀하의 정규학교 교육 총 년 수는 얼마입니까?

54. 귀하가 지난 1년 간 어학, 컴퓨터, 취미 등과 같은 자기계발을 위해서 교육을 받은 총 시간은?

() 시간

55. 귀하의 월평균 총 교육비는? (사교육비 포함)

() 만원

56. 귀하고 살고 있는 지역의 교육서비스 전반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불만족한다
- ⑤ 매우 불만족한다

※ 다음은 「쾌적한 삶」 분야의 삶의 질 지표입니다.

57.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자연환경은 얼마나 오염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깨끗하다
- ② 깨끗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오염되었다
- ⑤ 매우 오염되었다

58. 귀하는 쓰레기 분리 수거에 얼마나 동참하고 있습니까?

- ① 항상 참여한다
- ② 참여하는 편이다
- ③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 ④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59. 귀하는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상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지의 적절성 점검)

- ① 사용하고 있다
- ② 사용하지는 않지만 관심이 있다
- ③ 관심이 없다

60.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주요 환경문제는 무엇입니까?

()

※ 다음은 「사회·문화적 삶」 분야의 삶의 질 복지지표입니다.

61. 지난 1년 간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횟수는?
()회
62. 지난 1년간의 총 독서량은? (기간의 적절성 파악)
()권
63. 귀하는 신문을 구독하고 계십니까?
(일간지와 전문지 구분, 정기구독과 부정기 구독 점검)
64. 귀하의 지난 1년 간 국내·외 여행 총 횟수는?
()회
65. 귀하께서 주로 즐기는 여가활동은 어떤 것입니까?
66.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 및 여가 시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한다
67. 귀댁의 가족 형태는?
 ① 핵가족
 ② 직계가족
 ③ 대가족

68. 귀하는 자신의 노후 생활에 대해 대비하셨습니까?

- ① 예(68-1번으로)
- ② 아니오

68-1. 그 방법은?

- ① 보험 ② 예금·적금 ③ 연금 ④ 부동산 ⑤ 유가증권

69. 귀하는 부모의 노후부양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① 본인 스스로 ② 자녀 ③ 국가 및 지역사회

70. 가족원들과 가사 일을 얼마나 분담해서 하십니까?

71. 귀하는 가정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불 만족한다
- ⑤ 매우 불 만족한다

72. 귀하께서 읍·면 지역에 거주한 총 년 수는?

()

73. 귀하께서 현재 참여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계, 동창회, 정당, 농업인단체, 봉사단체 등) 총 수는?

()

130

* 다음은 자료분류를 위한 질문입니다.

74. 성별 :

75. 나이 : 만 세

76. 학력 ()

- ① 국민(초등)학교 졸업
- ② 중학교 졸업
- ③ 고등학교 졸업
- ④ 대학 졸업
- ⑤ 대학원 졸업

※ 이 밖에 선생님께서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 개발과 관련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을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부 록 3

농촌주민의 삶의 질 실태조사 결과

<부표 3-1> 가구당 연간소득

농업소득	250만원~2억 5,000만원
농외소득	50만원~1,500만원
이전수입	50만원~4,000만원

<부표 3-2> 소득 만족도

응답범주	빈도(%)
만족	8(13.6)
보통	12(20.3)
불만	31(52.5)
매우 불만	8(13.6)
계	59(100.0)

* 무응답 1명은 제외함.

<부표 3-3> 가구당 월 평균 생활비

응답범주	빈도(%)
50만원 미만	7(12.3)
50~100만원 미만	8(14.0)
100~150만원 미만	13(22.8)
150~200만원 미만	11(19.3)
200만원 이상	18(31.6)
계	57(100.0)

* 무응답 3명은 제외함.

<부표 3-4> 농번기 농업노동 시간

응답범주	빈도(%)
5시간 미만	2(3.8)
5~10시간 미만	8(15.4)
10~15시간 미만	40(77.0)
15시간 이상	2(3.8)
계	52(100.0)

* 무응답 8명은 제외함.

<부표 3-5> 직업 만족도

응답범주	빈도(%)
만족	13(21.7)
보통	16(26.7)
불만	26(43.3)
매우 불만	5(8.3)
계	60(100.0)

<부표 3-6> 종합검진

응답범주	빈도(%)
예	33(56.9)
아니오	25(43.1)
계	58(100.0)

* 무응답 2명은 제외함.

<부표 3-7> 농부증

응답범주	빈도(%)
음성(0~2점)	22(36.7)
의심(3~6점)	16(26.7)
양성(7~16점)	22(36.7)
계	60(100.0)

<부표 3-8> 장난 전화 경험

응답범주	빈도(%)
예	25(41.7)
아니오	35(58.3)
계	60(100.0)

<부표 3-9> 온수시설 구비 여부

응답범주	빈도(%)
예	40(60.0)
아니오	20(40.0)
계	60(100.0)

<부표 3-10> 수세식 화장실 구비 여부

응답범주	빈도(%)
예	34(56.7)
아니오	26(43.3)
계	60(100.0)

<부표 3-11> 월평균 전화요금

응답범주	빈도(%)
2만원 미만	4(7.1)
2~5만원 미만	20(35.8)
5~10만원 미만	20(35.7)
10만원 이상	12(21.4)
계	56(100.0)

* 무응답 4명은 제외함.

<부표 3-12> 컴퓨터 보유

응답범주	빈도(%)
예	39(65.0)
아니오	21(35.0)
계	60(100.0)

<부표 3-13> 승용차 운행

응답범주	빈도(%)
예	29(48.3)
아니오	31(51.7)
계	60(100.0)

<부표 3-14> 오토바이 소유

응답범주	빈도(%)
예	26(44.1)
아니오	33(55.9)
계	59(100.0)

136

* 무응답 1명은 제외함.

ABSTRACT

A Study on the Quality of Life Indicators for Rural Residents in Korea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o prepare the quality of life indicators which measure exactly the level of rural residents' living in Korea; 2) to establish the survey system to investigate the quality of life of rural residents periodically.

The major research methods of this study were the collection of existing related data, the E-mailed survey, and the field survey. The collection of existing related data was conducted by investigating the data of related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research institutes. The E-mailed survey was administered by the one hundred specialists to collect the opinions of the quality of life related experts. The field survey was administered by the residents of 6 village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entative quality of life indicators. Descriptive statistics such as frequencies, percentage, mean were used to organize and summarize the data of E-mailed and field survey.

A final proposal on the quality of life indicators for rural residents in Korea consists of 7 fields(economic, healthy, safe, convenient, comfortable, stable, enjoyable life) and 87 indicators. Also, the final proposal consists of 26 representative quality of life indicators(household income, income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average work hours, subjective health evaluation, days in bed, accessibility to medical facilities, satisfaction with health and medical service, number of reported criminal offenders, experience of telephone-harassment, reported fear of crime, satisfaction with community safety, satisfaction with housing, average hours of using computer, car possession, water

supply rate, water pollution, sewage treatment, satisfaction with the amenity level of community, preparation for old-age, education, satisfaction with education service, attendance at performance and exhibitions, newspaper subscription, satisfaction with culture and leisure facilities, participation in social group).

The methods to investigate the quality of life of rural residents can be classified into 4 ones: 1) use of the existing national statistical data; 2) handy survey on the quality of life of rural residents; 3) comprehensive survey on the quality of life of rural residents; 4) the improvement of statistics production systems at the unit of province, city, and county.

Researchers: Park Dae-Shik, Choi Kyeong-Hwan

E-mail Address: pds8382@krei.re.kr

참 고 문 헌

- 김덕현, 권용우. 1996. “삶의 질 대두와 공간·환경.” 『사회과학연구』 14(1): 5-22.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소.
- 김동일, 심재웅, 유철인. 1982. 『한국 농촌주민의 삶의 질: 사회지표 구성을 위한 종합적 접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미혜, 정경희, 정순돌. 2000. “노인복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1): 241-262.
- 김양희, 윤혜미. 1996. 『여성사회지표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 김영섭. 1994. 『서울거주 중산층의 ‘삶의 질’ 조사와 공공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
- 김인숙, 최은숙. 1993. “농가의 생활수준 및 생활만족수준에 관한 연구: 생활의 질에의 접근을 위한 시도.”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4(2): 83-97.
- 김제국 외 3인. 2000.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표설정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2001. 『2001년도 농촌생활지표』.
- 박대식, 정명채, 이영대, 김종숙. 1996. 『농어촌의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이영대. 1997. 『농촌복지지표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정명채, 허장. 2000. 『노령 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생산적 복지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성현, 곽창권, 김선미. 1986. 『통계지표로 본 도시와 농촌의 사회경제

- 변동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윤혜미, 김환준, 강혜규. 1990. 「사회복지지표의 체계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재기, 이은우, 김재홍. 1998. 「삶의 질의 국제비교와 지역 간 비교분석』.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46집. 집문당.
- 이현송. 1997. “한국인의 삶의 질: 객관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1(여름호): 269-301.
- 장봉규. 1996. “삶의 질: 개념과 측정.” 『사회과학연구』 14(1): 25-39. 경 상대 사회과학연구소.
- 정명채, 최경환, 허장. 1991. 「농어촌 복지제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 조명한, 차경호. 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48집. 집문당.
- 조홍식, 김태성, 남기철. 2001. 「농촌지역 사회복지실태 및 욕구조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중앙일보사. 1995. 「전국 74개市 비교평가 자료집: ‘삶의 질’ 입체분석』.
- 통계청. 2001. 「한국의 사회지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 I, II.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한국인의 삶의 질 : 현황과 정책과제』.
- Barnard, P. and J. N. K. Van Der Merwe. 1991. “Measuring the Quality of Life in Rural Community Development.”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 57-70.
- Burkhard, Strumpel (ed.). 1972. *Subjective Elements of Well-being*. Papers Presented at a Seminar of the OECD, Paris, May 15th-17th.
- Campbell, Angus.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Recent Patterns and Trends*.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 Cantrill, Ablert H. and C.W. Roll. 1971. *The Hopes and Fears of The American People*. New York: Universe Books.

- Corrie, B.P. 1995. "A Human Development Index for the Dalit Child in India." *Social Indicators Research* 34: 395-409.
- Drewnoski, J. 1970. *Studies in the Measurement of Level of Living and Welfare*. UNRISD.
- Diener, E.. 1995. "A Value Based Index for Measuring National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36: 107-127.
- Jacob, S. G. and F. K. Willits. 1994. "Objective and Subjective Indicators of Community Evaluation: A Pennsylvania Assessment." *Social Indicators Research* 32: 161-177.
- Lassey, W. R. and M. L. Lassey. 2001. *Quality of Life for Older People: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Prentice Hall.
- Marans, Robert W. and D. A. Dillman. 1980. *Perceptions of Life Quality in Rural America*. Survey Research Center,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The University of Michigan.
- Molnar, Joseph. 1985. "Determinants of Subjective Well-being among Farm Operators: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and Firm." *Rural Sociology* 50(2): 141-162.
- Mukherjee, Ramkrishna. 1989. *The Quality of Life: Valuation in Social Research*. Newbury: Sage Publications.
- OECD. 1973. List of Social Concerns Common to Most OECD Countries. Paris.
- OECD. 1982. The OECD List of Social Indicators
- Robert, Erikson. 1993. "Description of Inequality: The Swedish approach to Welfare." in M.C. Nussbaum and A. Sen (ed.). *The Quality of L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chuessler, K. F. and G. A. Fisher. 1985. "Quality of Life Research and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1: 129-149.

- Sirgy, M. J. 2001. *Handbook of Quality-of-Life Research: An Ethical Market Perspec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Series volume 8. Dordrecht. The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 Terlecki, Nester E. 1975.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Estimates of Possibilities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National Planning Association.
- U.S. Department of Commerce and Bureau of Census. 1980. *Social Indicators III: Selected Data on Social Conditions and Trends in the United States*.

연구보고 R444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02. 12.

발 행 2002. 12.

발행인 이정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 쇄 태광인쇄 02-468-9430

ISBN 89-89225-33-7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